

할렐루야! 높은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땅 가운데 충만히 허락해 주시사 주를 찾으며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나날이 더해 주시며 부흥의 불길에 계속되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3월 18일 (토) 제 1914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을 목격하고 있다

CT, 에즈버리 신학 대학원 교수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그 전망

켄터키주, 월모어에 있는 에즈버리 신학 대학원의 정교수들 (Timothy C./Julie M)은 동 대학 채플에서 일어나는 부흥운동이 에즈버리 캠퍼스와 그 너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희망적

인 이유를 바로 부흥의 현장에서 전해준다 (Asbury Professor: We're Witnessing a 'Surprising Work of God').

에즈버리 대학의 평범한 수요일 아침은 어느 때와 같았다. 10시 정각 몇 분 전 학생들은 채플에 참석하기 위해 휴즈 강당에 모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학기마다 일정 수의 채플에 참석해야 하기에, 그들은 정규 수업의 일환으로 채플에 참석하곤 한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은 달랐다. 축도가 끝난 후, 성가대는 마지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 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초월감에 사로잡혀 충격을 받았고,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머물렀고 계속 예배했다.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나는 채플실 바로 건너편 에즈버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듣고 채플실로 가서 직접 보기로 결심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과 이웃들, 그리고 지구촌을 위해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죄에 대한 회개와 누우침을 고백하고 치유와 온전함, 평화와 정의의 위해 간구했다.

몇몇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팔을 들고 서 있었다. 몇몇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함께 기도했다. 몇몇은 강당 앞에 있는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기쁨의 환한 얼굴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앞드린 채 있었다. 늦은 오후 잠시 떠났다가 저녁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었다. 목요일 아침 일찍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오전 중에는 수백 명이 다시 강당을 가득 채웠다. 나는 매일 엄청난 수의 학생들이 채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목요일 저녁에는 좌석이 다 차서, 서서 예배드리는 곳에만 참석 가능했다.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합류하기 시작했다. 켄터키 대학, 컴블랜드 대학, 퍼듀 대학, 인디애나 웨슬리 대학, 오하이오 기독교 대학, 트랜실바니아 대학, 미드웨이 대학, 리 대학, 조지타운 대학, 마

우트 버논 나사렛 대학, 그리고 다른 많은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예배는 금요일 하루 종일, 더 나아가 밤새 계속되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자리를 찾는 어려움을 겪었다. 저녁 무렵에는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꽉 찼다. 매일 밤, 몇몇 학생들과 다른 이들은 밤새도록 기도하기 위해 예배당에 머물렀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현재, 그 기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용어가 정치적 행동과 기독교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에즈버리 대학에서는 아무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신학교에서 은퇴한 신학자이자 동료인 스티브 시먼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가 학생이었을 때 경험했던 유명한 1970년의 에즈버리 부흥과 유사하다고 내게 말했다. 그 부흥회로 인해 일주일 동안 수업이 중단되었고, 그 후로도 2주간 더 저녁 집회는 계속되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학교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에즈버리가 훨씬 더 깊은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점이다 - 일찍이 1905년에 일어났고, 최근에는 2006년에 학생 채플에서 4일간의 예배, 기도, 찬양이 있었던 것을 포함한다.

<2면으로 계속>



UMC, 미 남부/북서부 지역 남성 목사, 백인 회중교회가 탈퇴!

루이스교회리더십센터, UMC에 남는 교회들과 교단을 떠나는 교회 특징

루이스교회리더십센터가 발표한 새 보고서는 연합감리교회에 남는 교회들과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의 특징을 비교했다(Report on Disaffiliating United Methodist Churches through 2022: Compar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연합감리교회 총회재무행정협의회(General Council on Finance and Administration)의 데이터와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탈퇴하는 교회들 다수가 남자 목사가 이끄는 주로 백인 교회라고 서술한다.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는 교회들은 압도적으로 남부와 남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교단에 잔류하는 연합감리교회들과 비교하면 남성 목사와 백인이 다수를 이루는 교회의 비율이 높다.

이는 2019년 통계를 기반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과 잔류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비교한 루이스교회리더십센터 보고서의 조사 결과 중 일부이다.

“많은 연합감리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교단을 지키는 교회들의 특징을 잘 알고자 이 같은 체계적 비교를 요청했다.”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회장 토머스 J. 비커튼(Thomas J. Bickerton) 감독은 루이스센터와 특별히 이 기관의 수석 자문위원이자 보고서의 주 저자인 러브 H. 웨임스 주니어(Lovett H. Weems Jr.) 목사에게 떠나는 교회와 남는 교회에 대한 연구를 치하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이남수 목사 4면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이길호 목사 7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본부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암)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1986-2023
대학교 설립 37주년

Global Leadership Seminar & 2023 Commencement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 학위 수여식

세계 미래 지도자 발굴 및 양성과 세계선교를 위해 1986년도에 설립한 Midwest University 는 개교 37주년을 맞이하여 전문적이며 성공적인 강사를 초청하여 Global Leadership 세미나를 개설하며 전세계 리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박동선 회장 파킹턴 인터내셔널 회장
세계 최고의 전성적인 협상가이며 현 한국의 실세 리더들의 모임인 정신포럼 회장, 105개국 주한 대사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부임 초부터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



Dr. Bill Federer
American Minute 설립자, 역사학자, 저술가(100여권), Midwest 리더십박사, 미국 건국과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 리더십이 미친 영향에 대하여



양준길 목사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에서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고 교단을 탈퇴하며 목사 리더십 결단력에 감동과 도전을 준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 담임목사



권준 목사
새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며 가장 젊고 건강한 목회를 하며 미서부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목사



Dr. James Song 총장
Midwest University 설립자, 총장
MIRI 연구재단 이사장
Global Leadership Institute

Global Leadership Seminar
May 15(Mon) - 18(Thu), 2023
학위수여식
May 18, 2023. 10:00 am
IEA 목사안수식
May 18, 2023. 1:30 pm

문의 : 전화 (636) 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발행인 칼럼

살아있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많이 궁금했다. 떠난 지 수십 년 만에 모교인 총신대학교 개강 수련회 강사로 초청 받아 가면서 학교는 얼마나 변했는지 특히 요즘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알고 싶었다. 살짝 걱정이 앞섰다. 예전의 젊은이들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던 것이다. 그래도 모교에 강사로 가다니 이 무슨 큰 은혜인가 감격하며 후배들을 만날 생각으로 설레기도 하였다.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고 몇 만남도 끝내고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니 화요일 새벽 6시 30분이었다. 첫 집회가 10시 30분에 시작한다니 씻고 옷을 갈아입고 총장님을 비롯하여 예배 전에 만나야 할 분들과 그 시간을 고려하면 그리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었다. 학교까지 가는 길에 차창으로 보니 어느 운동장에서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었다. 팬데믹 때에는 같이 운동을 못해 몸이 몹시 육신거렸을 추억의 동네 축구 아저씨들이 정겹게 보였다. 학교에 도착하여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성경책과 설교원고를 챙겨 총장님실로 향했다. 앞을 보지 못하시며 유학하여 학위도 마치고 교수와 총장의 직분을 너무 잘 감당하시는 입지전적(立止傳的) 총장님이다.

인사를 나눈 후 교목실장님의 안내로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동안 나의 모든 예단(豫斷)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예배당을 딱 메우고 넘쳐 콘서트 홀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학부(學部) 학생들의 찬양 열기가 대단했다. 눈물어린 교수님의 기도, 가슴에서 울러난 재학생 특송에 이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정말이지 나는 정성껏(?) 준비한 원고를 한 줄도 안 보았다. 볼 틈도, 볼 생각도 없었다. 후배들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눈망울에서 한 순간도 멀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집회마다 학생들, 교수님들, 직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설교자는 은혜를 나누기보다 은혜를 듬뿍뽐받았다. 따스한 봄 날씨가 짧은 한국 일정동안 계속되었다. 그 날씨 속에 학교에 머무는 동안 교정에 한참서 있기도 하였고 교정을 거닐기도 하였다. 따스한 햇살에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마음은 상쾌해졌다. 눈은 매우 즐거웠다. 캠퍼스가 젊은 학생들로 북적이며 활기를 띄웠기 때문이다.

모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두 곳을 방문하였다. 필자가 속한 교단에서 필자가 임원을 맡고 있는 터라 본 교단의 뿌리요 형제라 할 수 있는 합동교단의 전(前) 총회장을 지내셨던 소감석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새에덴 교회와 현(現) 총회장이신 권순웅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주다산교회를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도 전하였다. 모든 회중이 마스크를 다 벗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은 두 교회의 예배당에 가득히 차고 넘쳤다. 목사님들은 환대해 주셨고 성도들은 말씀에 반응해 주셨다.

금요일 밤 9시는 어린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다. 또 청소년들이 공부하거나 게임하면서 매우 바쁜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시간에 시작되는 집회에 영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들이 함께 어울려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놀라운 광경을 방문한 교회에서 보았다. 토요일에 미국으로 돌아온 뼈뚫한 일정이었지만 활기찬 학교와 다음세대 까지 역동적인 교회들을 보면서 연신(延伸) '살아있네'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온전한 사역 위해선 삶과 목회가 건강해야 한다!

목회자의 삶과 목회를 균형 있게 꾸려가는 12가지 원리 제시

목회자의 죄나 연약함 때문에 교회까지 휘청거린다는 아픈 소식을 자주 들린다. 교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목회자가 목회에 진액을 쏟고, 사역에 매진하며, 말은 바를 온전히 감당하는 가운데, 때마다 찾아오는 각종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일은 목회자 스스로, 그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요구된다.

진정, 혼자 설 수 있는 목회자는 없으며, 모든 목회자는 교회라는 영적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 서로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는 무너지는 목회자 뒤에는 항상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가 존재하며, 목회자 한 명의 무너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

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텍사스주에 있는 목회상담센터(The Center for Pastoral Life and Care)와 폴 트립 미니스트리(Paul Tripp Ministries)의 대표로 섬기는 폴 트립(Paul Tripp)은 목회자들을 위한 멘토로 불린다. 그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끄는 험난한 소명의 길을 완주하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삶과 목회를 균형 있고 건강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12가지 원리를 제시한다(12 Gospel Principles for Leadership in the Church). www.paultripp.com

원리 1 (성과) - 성과를 내는 데만 집중하는 공동체는 영적으로 병들기 쉽다.

원리 2 (복음) - 목회자가 하나님 은혜의 도구가 되려면, 서로의 삶에 그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헌신해야 한다.

원리 3 (한계) - 하나님이 정하신 은사, 시간, 에너지, 성숙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원리 4 (균형) - 삶의 다양한 소명을 인식하고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원리 5 (인격) -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조직이나 전략보다 인격을 중시한다.

원리 6 (전쟁) - 복음 사역을 하는 모든 목회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른다.

원리 7 (종) - 목회자는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

원리 8 (솔직함) - 공동체는 어떤 목회자든지 자기 문제를 고백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한다.

원리 9 (정체성) - 어디에서 정체성을 찾느냐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를 결정한다.

원리 10 (회복) - 목회자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원리 11 (장기적인 사역) - 복음의 공동체에 속한 목회자만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다.

원리 12 (임재) - 하나님의 임재, 능력, 약속, 은혜라는 렌즈로 자신의 연약함, 실패, 죄를 봐야 한다.

이 고백은, 누구보다도 쉽게, 또 자주, 외롭고 고독하며, 무기력감과 회의감 등에 사로잡힐 모든 목회자(여러분)의 솔직담백하고도 진솔한 고백이다.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목회를 균형 있고 건강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폴 트립이 제시한 원리들을 꼭 되새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을...

(1면에서 계속)

많은 사람은 채플실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거의 깨닫지 못했다고 말한다.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면서 시간과 영원이 뒤섞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이하고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분석 신학자로서, 나는 과대 광고에 지쳤고 조작에 대해 매우 경계했다. 나는 특히 감리교 성결 부흥의 전통을 배경으로 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 교단은 공허할 뿐 아니라 해로울 수 있는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조작하며 강요하는 곳이

었다. 나는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강요나 과대광고는 없다. 조작 또한 없다. 감정적으로 고조되지도 않았다.

반대로, 지금까지는 대부분 차별하고 평온하다. 희망과 기쁨과 평화의 어울림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손에 만져질 듯이 뚜렷하다 - 생생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shalom이라 할 수 있다. 성령의 사역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함과 동시에 매우 온화하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역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사역자 청빙 공고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는 보수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가진 교회에서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실 교육부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를 청빙 하고자 합니다.
직책: 교육 담당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
청빙 대상 및 자격: (1) Part Time or Full time 사역자: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수확중인 분 (2) 교회음악 담당자는 교회음악 전공자
지원 자격: (1) 영어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분. (2)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우대 또는 미국내 합법적 체류로 근로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영주권 후환 가능)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자기 소개서(신앙 고백서, 사역 경험) (3)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4) 목사 안수 증명서 또는 소속 교단 증명서 (5) 추천서 2부(현재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 추천서 및 평신도 리더 추천서) (6) 설교-최소한 2편 이상(설교 주석 Link 혹은 DVD나 구글 드라이브 등을 통해) (7) 가족사진
지원 방법: (1) 위의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면접은 지원 마감 후 서류 심사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 (3)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마감 기간: 2023년 5월 31일
보낼 곳(우편 주소): (1)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2) 이메일: kcalvarylv@gmail.com
문의: (702)296-9193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 담임 목사 조웅철

유초등부 사역자(Part-time)청빙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목사: 남성수 / CRC 교단)에서는 함께 동역할 유초등부(Elementary) 사역자(Part-time)를 청빙합니다.
KCOE, member of CRC denomination, is located in Orange County. We are currently looking for a part-time Elementary Pastor.
지원 자격 Qualification: 유경험자 Experienced pastor
제출서류 Please submit: 1. 이력서 Resume 2. 자기 소개서(신앙간증 / 소명 / 목회경험 / 가족소개) Self-introduction 3. 목회자 추천서 1부 Pastoral recommendation letter
사례 Compensation: 사례는 면접 시 안내해드립니다 To be determined after the interview
접수 마감 및 문의 Application due date and contact information: 1. 2023년 4월 30일까지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kcooffice2@gmail.com) Please submit all documents by April 30, 2023 via email to KCOE (kcooffice2@gmail.com) 2. 문의 전화: 714-893-1652(교회 사무실) Contact phone number: 714-893-1652(church office)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93)

UMC, 미 남부/북서부...

(1면에서 계속)
비커튼은 사람들이 떠나는 교회들에 대해 더 궁금해할지도 모르지만, 남는 교회들에 관한 자료에도 유익한 교훈이 담겼다고 믿는다.
그는 “우리는 사역과 선교를 중심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재구성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며, 이 연구 결과는 그 일에 명료성을 더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성소수자의 포용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오랜 분열로 인해 2019년 총회는 미국 내 교회들이 교단의 신학 조항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는 한시적 특별 조치를 승인했다.

교단을 떠나는 교회는 특정 재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 교회 내 2/3 이상의 탈퇴 찬성표와 더불어 교단의 지역별 기구인 연회에서도 과반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같은 탈퇴를 허용하는 근거는 장정 2,553이며, 이 조항은 2023년 말에 만료된다.

연합감리교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연회들은 현재까지 2,036개 교회의 탈퇴를 승인했다.

루이스센터의 보고서는 교단 총회 재무행정협의회 데이터와 다른 교회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2022년 말까지 탈퇴 승인을 받은 교회들을 확인한 결과, 2019년에 미국 전체 연합감리교회의 6.6%에 해당하는 1,967개 교회가 탈퇴한 것을 확인했다.

루이스센터의 보고서는 탈퇴 교회들의 규모나 인종/민족 구성 등의 특징을 조사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즉 탈퇴 교회들이 여전히 연합감리교회 소속이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했다.

웬스는 한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약 30개의 연회가 개체 교회의 교단 탈퇴를 다룰 특별 회기들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탈퇴 교회의 숫자가 증가하면 이 집단의 특징 또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루이스센터가 제공하는 것은 임시적인 데이터라고 밝혔다.

또한 통계자료가 최근이 아닌 2019년의 것을 사용한다는 점도 보고서의 한계로 지적된다. “보고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큰 그림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라고 웬스는 말했다.

루이스센터의 보고서는 남는 교회와 떠나는 교회 사이에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더 많다.”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차이점을 강조했다.

“저는 지역과 인종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웬스는 말했다.

보고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의 52%가 중남부 지역총회와 동남부 지역총회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탈퇴한 교

회의 84%가 이 지역에서 나왔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이 두 지역총회는 2019년 당시 미국 내 연합감리교인의 63%, 탈퇴 교인의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두 지역총회 내에서도 일부 연회들은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동남부 지역총회 소속인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2022년 11월 19일 특별 회기로 모여, 교회 수로는 연회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249 교회의 탈퇴를 승인했고, 남중부 지역총회의 텍사스 연회는 2022년 12월 4일에 모여, 연회 전체 교회의 절반에 해당하는 294 교회의 탈퇴를 승인했다.

텍사스 연회의 장로 목사이자 퍼킨스 신학교 교수인 테드 캠벨 목사는 “텍사스 연회는 불과 몇 달 만에 대대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리교인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새롭고 익숙지 않은 환경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루이스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미국 내 89.6%의 교회는 대부분 백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으며, 탈퇴하는 교회의 중 97.3%가 대부분 백인으로 구성된 교회였다. 하지만 2019년 미국 내 연합감리교회의 7.2%에 해당하는 아프리카계/흑인 미국인 교회에서 탈퇴한 교회는 2%에 불과했고, 한인들이 포함된 아시아인들의 교회들 역시 교단을 탈퇴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비커튼 감독은 흑인 연합감리교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겪은 감리교회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연합감리교회에 보여준 신실함에 감사를 전했다.

“흑인 연합감리교인들은 떠나야 할 수많은 핑계가 있었음에도 교단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역임을 당하는 와중에도 그들이 보여준 끈기와 신실함 그리고 우리 교단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라고 비커튼 감독은 말했다.

교회갱신을 위한 흑인감리교회(Caucas Black Methodists for Church Renewal)의 의장과 부의장인 토니 러브(Antoine “Tony” Love) 목사와 데보라 베이스(Deborah Bass)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들이 교단을 갈라놓는 사안들에 대해 한 마음은 아니지만, 연합감리교회 내 인종 간 관계 회복을 향한 끈질기고 강력한 결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우리가 교단을 떠나면, (차별을 통해) 특권을 누리던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부여하는 셈입니다.”라고 러브 목사는 덧붙였다.

베이스는 또한 연합감리교회 내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들이 그녀와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와 연합감리교회를 탄생시켰던 1968년 교단 합병을 기억하는 “슈퍼시니어”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그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교단

합병 시에 약속했던 인종 정의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속한 교단을 떠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극도로 힘든 일입니다.”라고 베이스는 말했다.

루이스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미국 내에서 여성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의 비율은 전체 연합감리교회의 29%를 차지했으며, 탈퇴한 교회 중 17%가 여성 목사가 이끄는 교회였다.

텍사스주 동북 지역의 연합감리교회를 이끄는 민디 페이스 즈윈(Mindy Faith Zwirn) 목사는 이 같은 작은 크기의 표본에서 어떤 확정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그녀는 텍사스주에서 탈퇴를 찬성한 일부 사람들이 연합감리교회가 성경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하며, 목회를 향한 소명에 응답하고자 했던 여러 세대 동안 성경이 여성에게 교회를 이끌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의해 소명이 좌절되었던 점을 지적했다.

교단에 남기로 굳게 결의한 텍사스주 내쉬의 채플우드 연합감리교회의 즈윈 목사는 그런 역사적 이유를 보면 “왜 일부 여성 목사만 교단을 탈퇴하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루이스센터의 보고서는 또 평균 출석 교인 수에 있어서, 탈퇴하는 교회들과 교단을 지키는 교회들의 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발견했다.

두 집단 내 대다수의 교회는 평균 예배 출석 인원이 50명 이하이며, 탈퇴하는 교회 중 평균 출석 500명 혹은 그 이상인 교회는 전체의 3%, 남는 교회는 전체의 2%였다.

웬스는 연합감리교인들이 교단 탈퇴 운동을 아주 작은 교회들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연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들이 투표로 탈퇴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웬스는 주요 개신교 전반에 걸쳐, 여러 해 동안 평균 교회 출석과 재적 교인의 수는 계속 감소해왔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교단을 떠나는 교회들이 새로운 전통주의 교단인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에 가입하는지 혹은 다른 교단에 가입하거나 독립 교회로 남는지를 추적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커튼 감독은 이 보고서가 연합감리교회가 재정비해야 하는 지점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많은 지역에도 연합감리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신학과 사역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확신했다.

시론

생각의 표현보다 마음의 목상을 먼저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단어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에 있고, 그 승리로 인하여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의 실체가 그 생명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살리는 신앙이고, 생명을 누리는 신앙으로의 존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 번째 계명은 바로 이 생명의 존엄성을 침범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신문은 <한인 전도사, 부인 딸 살해 후 자살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1면 TOP으로 기사를 실었다. “...한인 대형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50대 한인 목회자가 부인과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과 함께 숨진 정 전도사는 1.5세로 영어권이며 청년 시절부터 20년 넘게 D교회에 출석했으며, 몇 년 전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해 영어권 2세들의 교육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된 사건에 대한 추측과 더불어 나름대로의 분석을 섞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이민교회 안에서, 특히 목회자들의 개인 SNS나 모임에서 나누어지고 있다. 물론 충격이었다. 그러나 충격보다 더 큰 안타까움은 “그러면 안된다고, 참아야 한다고, 신학도 공부하고 전도사라며?, 자살하면 천국 못 가는데, 저 혼자 죽지 어린 딸은 왜 죽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거야...” 라는 뒷이야기들이다.

이 사건을 다룬 언론들은 모두 대형교회, 전도사, 그리고 살해, 자살과 같은 단어를 앞에 내세운 단회성 기사일 뿐이어서 늘 그렇듯이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자의 몫’으로 던져버린 것만 같다. 그러다 보니, 단편적인 내용을 갖고 추측을 주고받는 가운데 세상에서는 교회의 구조문제나 처우문제에 화살을 쏘기 시작하고 있다. 일부 목회자는 구체적으로 담임목사와 부교역자의 불평 등 관계를 꼬집어내거나 실제 사례비 규정들을 짚어서 비판하고 있다.

마침 D교회는 우리 교회와 5분 거리에 있고, 교인들 중에도 이웃들이 분이다. 아무래도 이 교회 교인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위로보다는 수군수군, 지적과 비판이 앞서있는가 하면 심지어 이런 사건이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표현도 접하면서 참생명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오늘 우리 이민교회의 모습이 아프고 당혹스러울 뿐이다.

가족살해와 동반자살 같은 단어를 검색해보고, 생명문제에 대한 교회논문들도 찾아보면서 위로, 구원, 진리와 같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단어들과 연결된 성경 말씀들도 찾아보았다.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해야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운 마음에 자료들을 뒤적여보지만 한동안 마음이 잡히지 않는 것은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한국 초기 교회역사에 선교사의 자살사건이 있었다. 1893년 12월에 캐나다를 떠나 한국에 온 맥킨지(W. J. Nckenzie) 선교사는 빨리 한국말도 배우고 생활양식을 배워 전도하겠다는 열망으로 평양이나 서울같은 도시가 아니라 강촌이었던 황해도 솔내로 들어갔다. 2년여 주민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그 지역에서는 폭넓은 인정과 존경을 받아 선자라고 불릴 정도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심지어 동학당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도 주민들이 나서서 보증을 서주어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일사병에 걸려 고열(高熱)에 정신착란증세가 생겼고 이후 고통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갖고 있던 총으로 머리를 쏘 스스로 숨을 끊었다. 선교사의 자살(自殺)이었다.

그러나, 캐나다장로교의 한국선교 관련 문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그 정도도 이기지 못하면서 왜 험한 오지(奧地)로 들어갔느냐고 힐난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솔내 주민들이 후임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청원서와 교단 선교부에서 5명의 선교사를 이곳에 파송했다는 응답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사건 앞에서 당장 쏟아낸 판단은 정확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으며 지혜롭지도 않고 생명적이지도 않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건’ 중심의 판단보다 ‘위로와 회복’ 중심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역사 속에 어느 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배제된 사건이 있었는가? 우린 하나님의 뜻을 당장 알아채지 못하는 우매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생각의 표현보다 마음의 목상을 먼저 선택해야 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djlee7777@gmail.com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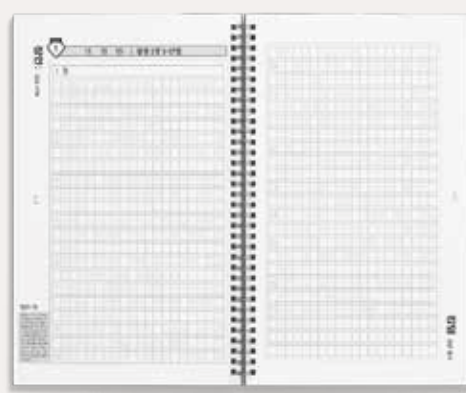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o@chpress.net / 718-886-4400



(일반용)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바르고 예쁘게 써주세요.



(청소년용)



영어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한글로 예쁘게 써주세요.

신앙 에세이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슬픔에 대하여

“울음 우는 아이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슬픔에 대한 글 가운데 첫 기억으로 남아있는 안톤 시냐크의 문장입니다. 원하는 장남감을 얻지 못할 때를 쓰는 아이든, 보육원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떠난 후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아이든, 아이들

의 울음소리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슬픔 가운데 제 가슴에 가장 깊이 새겨진 글은 미국 여류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시구절입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나는 좋다.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평생 세

상과 이별해서 자신의 세계 속에 들어가 시를 썼던 여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으나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배나무 사이를 거닐며 하얗게 핀 배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인. 짧은 생애 1,800편이라는 엄청난 시를 제목도 부치지 않고 썼지만 모두 혼자 간직했을 뿐, 10편 정도밖에 발표하지 않은 작가. 세상을 떠난 후에 책으로 묶여진 그녀의 시를 읽으면서 이 한 구절이 가슴에 스며 들어왔습니다. 그냥 새겨졌다 할 것이 아니라 시가 걸어서 제 속으로 들어와 저의 몸에서 자리를 펼치고 영영 떠나가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슬픔이라는 흔적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그만큼 슬픔이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만큼 깊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하

나님의 말씀에 묵묵하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 수만 가지 생각이 대양의 파도처럼 요동쳤지만, 여정 중간에 종들을 두고, 이삭만 데리고 죽음의 산체 스토리 가운데 제 가슴을 가장 슬프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픈 슬픔을 경험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없는 자식을 잃수 된 사람들을 위해 죽음의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분이니까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의 마지막 절규에 고개를 돌려야 했던 아버지, 호흡이 끊어지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아픔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대못처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고통입니다. 아버지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슬픔의 깊이를 말하자면 대양을 떠

물로 삼아도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떠나면지 나는 세상에 오신 예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창조주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에서 조롱과 저주를 당하면서도 사랑하고 품고 섬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예수님. 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해야만 하셨습니까?

우리는 슬픔에 에워싸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즐겁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목사라고 예외이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로서 늘 다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제 눈이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십

자가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당장이라도 뛰어 내려올 수 있는 그 죽음의 나무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너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리를 들게 하소서. 그러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흐르는 눈물, 부서지는 심장을 감싸주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쓴 <사람마다 향기다> 시집에서 이 마음을 담은 한 구절입니다.

내 정녕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가
누군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다면
떨리는 손을 잠시라도 잡아 줄 수 있다면
내 위대한 인생이라고 웃을 지을 수 있을 텐데
preachchrist@kcpc.org

푸/른/초/장

이남수 목사 (하와이행복한국교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5-17) 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줄 테니 내가 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다스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은 창조주야 이것만은 기억해야해, 그런데 그 표적이 뭔지 아니? 바로 저 선악과야. 저걸 먹지 않는 것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 될거야. 그러니 저건 먹지 말아야해. 먹는 날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하는 열매를 먹었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스도를 보내 주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죠.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예요. 었1:7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골1:13-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22에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찬송도 있습니다. 찬송가 257장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려했던 맘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도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18-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신약 성경에는 수없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수없이 반복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셨습니 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이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더 깊이 주님이 날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 내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hichristian9@gmail.com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과 구원 열왕기상 19:4-8



월 7일 공개가 되었지요.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인 사건이 속속들이 들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믿고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보통 인간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보니 이런 기가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자신이 신이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속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위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과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구원에 대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사람을 만드셨습니 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아드뎌고 풍성한 에덴동산을 만드셨습니 다. 사람이 살기에 최상의 조건을 다 준비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 다. 그러면서 에덴동산을 보이시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

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지은 죄,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원죄 죄의 뿌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나오는 것이예요. 로마서 3: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하는데 그것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게 되고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열기 위해 예수 그리

보내 주셨으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를 싫어합니다. 피 하면 그냥 싫거나 피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평생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예요. 그들의 제사 방법은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 자신의 죄를 그 제물된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었지요. 자신의 죄를 대신 해 그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 제사법은 구약에, 특별히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Jesus Revolution 예수혁명’ !!!

기대를 초월하는 성과에 대한 제작진, 배우들의 고백,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Jesus Revolution’이라는 영화는 1970년대 미 전역을 휩쓴 기독교 부흥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히피 목사 Lonnie Frisbee의 역할을 맡아 열연한 Jonathan Roumie는 이 영화가 흥행에서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에 대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음처럼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젠 정말 믿을 수 없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네요.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지지도 감사하고, 이 영화를 포용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실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시사회 날, 수도원에서 제게 주어진 이번 기회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여기며 하나님과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인생에서 첫 우선순위라는 것을 저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은 그저 덤이지요.”

“Jesus Revolution” 영화에서 주요 인물로 출연하는 사람들은, 히피 목사였던 Frisbee 역할을 맡은 Roumie 와 갈보리 채플 창시자 Chuck Smith 역을 맡은 Kelsey Grammer 그리고 현재 Harvest Church의 담임 목사이자 순회 전도 부흥 집회 Harvest Crusade를 인도하는 Greg Laurie 목사 역을 맡은 Joel Courtney입니다.

“Jesus Revolution” 영화는 1970년대에 미 서부지역에서 ‘진리’와 ‘의미’를 찾는 여정 속에 있던 Greg Laurie의 모습에서부터 전개되며, 제작진들과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감동이 짙습니다.

2400개의 상영관에서 개봉된 이 영화는 천오백만불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이 되었는데, 개봉 주말에 당초 예상한 것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에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화 공동감독을 맡은 Jon Erwin은, 출연자들과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 “Jesus Revolution”이 특별한 작품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시기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영화가 출시되게 하실 줄은 미처 몰랐다. 지금 현재 이 나라에 부흥이 휩쓸고 가는 이때에 (에즈버리 및 기독교 대학 내로 번져가는 부흥을 의미) 나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화를 사랑하고 ‘Jesus Revolution’이 그런 큰 부흥의 역사에 일부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Brent McCorkle는 “Jesus Revolution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무엇보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revolution’을 설명할 수조차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영화를 통해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흔들림이다... (생략) 이 영화를 만들면서 1970년대 그 당시 미 전역을 걸쳐 일어난 성령의 역사들에 관해 읽는 것마저 나에게서는 매우 놀라운 체험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Harvest Christian Fellowship 교회를 이끄는 Greg Laurie목사는 전도의 일환으로 크리스천들이 다른 이들을 이 영화 참관에 데려오도록 다음처럼 도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Jesus Revolution’ 영화 관람을 하도록 데려오는 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전도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 영화는 복음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진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이 더 깊어졌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린 계속 듣고 있다. 전도할 사람이 있다면 꼭 함께 가기를 바란다!”

공동감독, Jon Erwin은 이번 작품가

지 4번에 걸쳐 작품에 대한 A+ cinema score 점수를 받은 첫 감독이 되었습니다. Erwin은 신앙에 기반을 둔 영화 “I Can Only Imagine,” “American Underdog” and “Woodlawn” 등을 통해 A+의 점수를 받은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Erwin 감독은 Christian Post와의 인터뷰를 통해, “할리우드는 주로 실존한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데, 나는 목사들의 힘을 복돋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사실상, 훨씬 더 많은 목사들이 미 전역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는 늘 모든 이야기들을 목사가 실존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 생각에는 미국 목사들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가장 과소 평가되고 칭송받지 못하는 계층이다. 사실상, 그들은 놀랍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많은 경우 목사들이 수고한 일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나는 한 목사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당시 종교적 상황에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히피 청년들에게 한 목사가 교회의 문을 열어 준 것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의 히피 젊은이들을 향한 시선은 ‘일단 점으로 들어가고, 머리로 좀 다듬고, 일도 하면서 사회로 복귀한 다음에 비로소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생략) 하지만, 그런 그 당시의 일반 교회에게 대신에, 척 스미스 목사는 히피들에게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미 전역에 걸쳐 모든 목사들에게 주어진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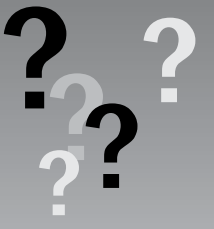
‘Jesus Revolution’... 굳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예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단순한 영화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고 온 사람들뿐 아니라, 제작진과 배우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관람의 참여는 영화를 제작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뿐더러 복음 전파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이 영화가 상영 중이라면 온 가족이, 그리고 주위 분들과 함께 꼭 관람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창세기를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첫째 날에 창조된 것인가?
- 가디나의 신학생

“첫째 날에 빛과 우주와 지구 창조”

A: 보통 성도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알지만 창 1장을 히브리 원어적으로 깊이 공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해와 달과 별들은 창 1:1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의 하늘은 복수형으로 하늘들(Heavens)로 히브리어로 핫 스마임으로 천체를 포함한 우주 하늘들을 말합니다.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한 개의 은하계(1 heaven-Galaxy)는 별들이 1천억 (One hundred billion)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발견된 것이 1500억~3000억개의 heavens(Galaxy)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체의 기존 재료는 첫째 날에 창조되었고 넷째 날에 빛을 첫째 날에 창조된 물체에 투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창조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빠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을 말합니다.(Creation EX Nihillo, 창 1:1절) 그런데 창 1:16절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은 “빠라”인 창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로 아사(만들다)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기존 천체의 재료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넷째 날에 하나님이 기존 은하계의 천체의 물체에 빛을 투입하여 빛을 내는 발광체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구약의 권위있는 주석가 Keil & Delitch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넷째 날이 되어서야 빛이 투입되면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만 창조한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첫째 날에 빛과 우주와 지구를 창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만약에 첫째 날에 빛만 창조했다면 지구 창조는 언제 한 것입니까? 지구는 첫째 날에 창조된 것입니다. E.T. Young 교수의 In the Beginning에서, 총신의 유재원 교수도 그의 책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태초의 지구는 창 1:2절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의 깊음은 히브리어로 테흠으로 깊은 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시의 지구는 소용돌이치는 많은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제공하기 위해 물이 드러나라고 명령합니다. 에드워드 J. 영교수는 물로 뒤덮인 땅이 출현할 때 화석의 퇴적이 바로 그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땅이 물에서 솟아 날때 많은 침식작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스티커는 뜨거운 수증기로 휩싸여 있던 지구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지표의 수축과 함께 고지와 산과 계곡과 강들을 형성하는 용기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설명합니다.



Pray for Turkey & Syria

터키와 시리아를 위한 제1차 긴급구호기금



21세기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될 이번 지진은 2월12일 현재 3만7천여명의 사망자와 수 십만명의 부상자, 수 백만명의 이재민을 기록하고 있으며 2십여만명이 여전히 매를 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현지주민들에게 구호금이 직접 전달 될 수 있도록 모금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이슬람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온라인카운터 교회가 아래와같이 마음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모금액 전액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남가주 교회와 성도님들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모금참여 방법 : 개인, 교회, 기업과 단체, 기관별 참여가 가능합니다. (Tax deductible)
Payable to : The Council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in Orange County (KCCOC)
메모란에 c/o Turkey & Syria (터키와 시리아) 를 반드시 기록해 주십시오.
Mail to :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 1. 제1차 긴급구호기금 목표액 \$100,000 전액전달
- 2. 4월/5월 중 선교대표단이 현지를 직접방문, 교회재건과 지역주민 회복에 사용하게됨
- 3. 현지선교사 선정은 참여교회가 후원하는 현지 선교사와 공신력있는 선교기관의 추천을 통해
- 4. 현금접수 진행사항과 현지선교사 추천사항은 미디어기관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될 예정

모금에 관한 문의 : (714) 722-4805 심상은목사 (714)873-9164 윤우경 홍보위원장

준비위원장 : 심상은목사(갈보리선교교회/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준비위원 : 박재만, 추석근, 이영선, 강순영, 안신기, 김영찬, 황선철, 김용진, 김영수, 황선철, 윤우경, 신용, 민길, 이경신, 이선자, 김수연, 박용일 등 (추가 중)

주최 :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장로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공동주최 : 은혜한인교회, 갈보리선교교회, 청교도신앙회복운동, 미러클포인트교회, 선한뜻교회, 세리토스총만교회, 효사랑선교회, 시민권자협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리파운더스유나이티드,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서남부지방회, CBMC(남가주연합회, 가든그로브지회) 등등 (계속 접수 중)

후원미디어기관 : 중앙일보, 한국일보, 미주복음방송, CHTV,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찬투데이, 크리스천위클리, 크리스천헤럴드, 사랑과사회, 기독교일보, 크리스천비전 등 (추가 확인 중)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귀중하고 값진 것은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기 때문이다.

노벨은 '나는 무엇으로 기록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삶의 송곳이 되어 그의 인생 막판을 송두리째 뒤집었다.

노벨이 프랑스 칸에서 사망했다. 당시 한 신문이 이것을 알프레드 노벨의 사망으로 혼돈해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라는 부음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기사를 본 알프레드 노벨은 큰 충격에 빠졌다.

노벨상은 이 세상에 시작되지 못했다. 티쿰 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다. 티쿰은 바꾸다, 올람은 세상이라는 말인데 이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의미다.

악보다는 선에 더 가깝다. 악은 옹호보다는 선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다. 바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요소들인 것이다.

다. 노벨의 삶을 변화시킨 그래서 인류발전에 공헌하는 노벨상이 제정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깊은 물음에 반응해야 할 절대 이유가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공포감 확산...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가 61% 폭락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 중소형 은행에 대한 투자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에서 등장해 고객 불안감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뉴욕 주식시장에서 은행주 대부분이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



러시아군 병사 어머니와 부인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징집병들을 최전선 도살장으로 보내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SOTA에 여성 20여명이 등장하는 동영상 한 편이 공유됐다. 이 여성들은 영상에서 '580 곡사포방사단'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서 "제대로 된 훈련과 보급 없이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으로 징집된 남편과 아들이 불과 나흘짜리 훈련을 받고 이달부터 강제로 공격부대에 들어갔다" "동원병들은 100명의 중무장한 적군에 대항하기 위해 한 번에 5명꼴로 투입되고 있다" 등 현재 러시아군 실태를 전했다.

이제 제대로 된 훈련이나 장비 지급 없이 전쟁에 동원되는 병사들을 '도살장에 가는 양'에 빗대면서 "최전선에서 이들을 철수시키고, 포병들에게 대포와 탄약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바이든, 알래스카 대형 유전 개발 승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알래스카주 북서부의 대형 유전개발 사업을 승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50년 '탈탄소' 달성을 대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내세웠던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 가

격 급등이라는 변수를 맞아 입장을 선화한 것이다.

코노코필립스는 '윌로 프로젝트(Willow Project)'라는 이름으로 알래스카 국립석유보호구역(NPR)에서 유전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구 온난화에 치명적인 탄소가 대량 방출돼 이상기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업을 통해 확보한 석유를 태우면 탄소 약 2억 8000만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석유단체와 원전기업 노동조합, 알래스카주 노스슬로프 지역 주민들은 에너지 안보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는 국가는 14개국이다. 그중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2개국이다.

GSO 산하 인구노동통계국 관계자는 "모든 국가가 인적자원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며 "1억 번째 시민의 탄생은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리창 중 총리 "기업 재산·권익 보호하고 경쟁 경쟁 촉진할 것"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13일 취임 일성으로 개혁개방 심화와 민영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상하이시, 저장성, 장쑤성 등 경제 도시를 두루 거친 그는 "올해 세계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많아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긴장을 풀지 말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공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제2의 100년 목표(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를 실현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여전히 개혁의 밥을 먹고 개방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인 '5% 안팎'에 대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 규모는 120조 위안(2경2687조원)을 돌파해 출발점 자체가 높은 데다 새로운 도전이 적지 않아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도 '인구 대국' ... 내달 1억명 돌파

베트남 인구가 다음 달 1억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현지 일간 VN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베트남 인구는 2018년 9470만명에서 2019년 9648만명, 2020년 9758만명, 지난해 992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2면에서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너무나 뚜렷하고, 형언할 수 없는 파스함과 고유의 끌림이 있다. 왜 아무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지,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왜 한사라도 빨리 돌아오고 싶어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든 비공식적이든,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순간적인 결정, 이곳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의 행위, 절망 속에서 하는 조용한 기도와 같은 일상의 순간에 일어난다고 굳게 믿는다.

다. 우리 주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채워질 것을 약속하신다. 그는 "보혜사"(KJV)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실로 자신이 떠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더 좋다고 약속하셨다.

말했다. 나는 이번 학기에 대학에서 신학 인류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학생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교감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 또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교감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경험하고 있는 예배는 예배당 밖,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요일 점심에 아들 조시아가 나를 발견하고는 그와 그의 친구들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나중에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라고 물었다.

VII. 기독론 (Christology) (3)

D. 그리스도의 지위 (States of Christ)

2. 그리스도의 높아짐 (Christ's Exaltation)

그리스도의 높아짐은 빌 2:9-11의 말씀에 근거로 한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신약의 여러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에 대해 언급한다 (막 16:19; 눅 24:26; 행 2:33; 5:31; 롬 8:17, 34; 엡 1:20; 4:10; 딤후 3:16; 히 1:3; 2:9; 10:12). 이것은 또한 성도들이 미래에 주어질 축복을 표시한다.

1) 그리스도의 부활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없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아래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에 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복음의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다. 사도들의 메시지의 중심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고전 15:3-4)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메시야 (행 2:31-32; 3:13-15; 5:30-32; 10:39-43)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표시이며 (행 13:33; 롬 1:4),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중보 사역의 완성이며 (행 4:11-12; 5:31), 성도들의 사죄와 칭의의 보증이며 (행 5:31; 롬 4:25), 우리의 부활의 표시이며, 기독교 복음의 기초가 된다 (고전 15:12-19).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보장한다.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사 잡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진리를 대표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엡 2: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함께 일으키사" (συνήγειρεν)는 과거 시제로 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성도들은 부활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한다.

2) 승천하심

그리스도의 승천은 행 1:9-11에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앞으로 주님처럼 모든 성도들도 승천할 것을 가르쳐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심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의미하며, 그리고 성령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예표가 된다 (요 14:26; 16:7-15).

3)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은 높아짐의 최고의 절정을 이룬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증거한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E.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The Three Offices of Christ)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18)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외적으로 보여준다. 구약 이스라엘에 주어진 직분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다. 진정한 왕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종류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었다. 구약의 3 직분은 모두 오실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1. 선지자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로 "나단 (נָדָן)"이며, 신약의 헬라어로 "프로페테스" (προφήτης)이다. 구약 히브리 및 신약의 헬라어 단어의 선지자는 "대언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 (forthtelling, 오늘날 설교와 같음)이며,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예언 (foretelling)이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이전)에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셨다 (창 16:7; 22:11-12, 15; 사 33:3-20). 물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말하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창 16:10)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와 사자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갈에게 친히 하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물론 일반 은총으로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내가" 1인칭으로 사용하셨다.

(창 22: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여호와와 사자"는 그 제물을 가리켜 자

기 자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말씀하셨다. 물론 성육신 이전의 성자 예수님께 제물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리킨다.

(말 3:1)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너희가 구하는 주" 곧 "언약의 사자"이다. 이 명칭들은 모두 장차 오실 메시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성육신 이후 신약, 행 3:22-23에서는 신명기 18:15의 예언대로 오신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사도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를 전했고, 이분이 복음의 기초가 되신다.

(행 3:22-23)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2. 제사장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코헨 (כֹּהֵן)"이며 헬라어는 "히에루스 (ἱερεύς)"이다.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제물은 신

약의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것을 예표한다 (히 9:9-14). (히 9:9-10)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 장막"은 6-8절의 기록된 것들, 즉 구약의 제사제도 전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또한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말은 (παράβολὴ εἰς τὸν καιρὸν τὸν ἐνεστηκότα) "현시대, 즉 신약 시대까지 비유"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혁의 시기"는 신약 시대를 말한다. 구약의 제물은 신약의 실체에 대한

예표 (type)이다. 신약의 실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신 주님의 속죄 제사이다.

메시야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는 인류가 범죄하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저주를 받은 자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대속죄물로 자기의 몸을 영원한 제사로 드린 것은 갑작스런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 희생제물로 예표된 예수님의 대속죄물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다.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속죄적 죽음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죄적 죽음을 많이 증거한다. 제사장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사역을 하며,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다. (히 5:1) "대제사장이자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별코프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셨으며 이것을 능동적 순종(active obedience), 또한 그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수동적인 순종 (passive obedience) 이라고 한다.

그리고 별코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수난) 때문에 우리가 사죄함을 받는다. 그러나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2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순종하신 일이다. 능동적, 수동적으로 나누어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바빙크에 의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의 순종을 "하나의 의 (ἐνός δικαιοματός), 하나의 순종 (τῆς ὑπακοῆς τοῦ ἐνός)"으로 말한다고 주장한다. (롬 5:18-19) "그러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빙크는 성도들이 죄용서함과 칭의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기초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 (능동적 순종)이 칭의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만 (수동적 순종) 사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 전체가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 율법을 완성 하심, 등) 칭의와 사죄의 기초가 된다는 주장이다.

개신교에서는 만민 제사장 (Priesthood of all believers) 교리를 주장한다. 이것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벧전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평신도들을 가리킨다. 신약에 사용된 "제사장"이라는 말은 특별한 계급에게 주어진 직분이 아니다. "제사장" (히에루스; ἱερεύς)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교회의 특별한 직분자들에게 사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성경은 제사장의 사역, 곧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사역이 목회자에게만 있다고 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딤후 2:5)이심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는 목회자, 평신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주어졌다. KHL0206@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한교회, 남가주사망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스망교회, 세계선교회, 살비지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히슬스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후원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6)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외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4장 악인이 회심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리 2: 그러나 악인이 거짓 없이 철저히 회개하면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회개하면 산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진리만큼이나 확실하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을 때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 주시거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거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부르셔야 할 아무런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다.

1)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의 내용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야. 우리의 사명은 구원을 전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 용서의 제안을 받아들여 회개하도록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설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따뜻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해 주도록 명령받았다. 한편으로 우리는 참으로 진노와 죽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 어느 것도 우리의 주된 메시지는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행위 율법을 어김으로서 이미 여러분 위에 놓여 있는 진노와 태어남에서부터 선고받은 죽음에 대해 전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자비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구세주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를 찾아가겠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비참함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비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지만 멸망이 아니다.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우리는 먼저 여러분에게 자비를 전한다. 우리가 멸망을 예고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고, 자비로운 음성을 듣지도 않는 자들에 대해서이다. 만일 여러분이 회개만 한다면 나는 여기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즉 여러분 중에서 가장 악한 자에게도, 가장 오래된 죄인에게도 생명의 주의 이름을 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안에 충분함이 있다. 약속은 자유롭고 충분하며 보편적이다. 즉 여러분이 회개하기만 하면 생명

제안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근거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여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 천국은 허구가 아니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이다. 우리의 이런 사명의 근거는 성경에 매우 많다. 에스겔 18장과 고린도 후서에 이것이 요약되어 있다(고후 5:17-21; 마 16:15-16; 눅 24:46-47; 행 5:30-31, 13:38-39; 갈 6:15; 눅 14:17, 23-24).

3)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근거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여기에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제안의 원천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그것을 샀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은 그 약속을 유효하게 한다. 이런 약속의 진실성은 기적들로 인쳐 졌다. 설교자들이 이

“너희는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는 기록함이 없어도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겁주지만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너희에게 하신 말씀보다 너희에게 더 잘 해 주실 것이다.” 세상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믿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마귀는 자비를 요청만 하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죄를 버리기만 하면 죽지 않는다고 말한다. 더욱 나쁜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자리에 대입해 놓고서는 불경스럽게도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믿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회개만 한다면 생명의 주의 이름으로 자비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선포”

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세속적인 삶의 방향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죽이는 것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눈에 띄는 추악한 죄를 짓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모양으로 다소 개선된 방식으로 육신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인과 행동과 목적을 바꾸되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살려고 한다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변화이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쓸데없이 멸망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토록 겁주거나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복음 전파 사명의 근거

우리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사실을 전하기 위해 온 세상에 보내졌다. 성령들이 제정되었고 그것은 제안된 자비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성령은 마음을 열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며, 성령 자신이 전체 소유의 보증금이기도 하다.

* 회심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마귀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것은 거짓을 설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여러분의 거짓된 마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약속하시고, 마귀도 생명을 약속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회개하면 산다는 것이다. 반면에 마귀의 약속은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간에 산다는 것이다(마 18:3; 요 3:35; 히 12:14).

그러나 마귀는 다음과 같

신뢰하는 것이라 부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비의 길로 나아온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거짓 없이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여러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연약함의 한 가운데서

딸 부잣집의 막내인 나에게는 다섯 언니가 있다. 그중에서도 바로 위에 언니는 두 살 터울이어서 거의 친구처럼 컸다. 어린 시절 같이 벽돌을 쌓아 고춧가루라고 놀던 소꿉 장난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시장을 가실 때면 함께 따라 다녔던 것 등 언니와는 많은 추억이 있다.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것 같던 언니가 믿음 좋은 집사이던 형부와 결혼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형부는 갑자기 신학대학원에 가셨다. 그리고 곧이 시골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사역자이겠지만 아내에게는 고생길을 걷게 한 형부에게 언니는 일상의 잔소리로 마음을 푸는 것 같았다. 그래도 명랑하고 리더십 있는 언니는 사람이 없는 시골 교회 성가대 지휘도 하고 치매로 깜빡하는 할머니를 집을 찾아가 약도 챙겨 드리며 사모 역할을 잘 담당했다. 함께 목회자 사모의 길을 가던 내가 젊은 나이에 혼자 된 것이 안쓰러웠는지 여유가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나에게 늘 무엇 하나라도 나누어 주고 싶어 했다. 젊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를 몰려 줘야 한다고 형부는 65살에 평생 삼킨 교회를 은퇴했다. 서울에 있는 다른 언니들 가까이 이사를 하고 두 아들도 결혼시키고 행복해 보이던 언니가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니 백만명에 서너명이 걸린다는 희귀병에 걸렸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수술이라고 생각했다가 들은 뜻밖의 병명과 수술 결과에 가족 모두가 당황하였다. 멀리 떨어져서 카톡으로만 소식을 듣고 있자니 담당해서 학교와 교회 사역을 줌으로 돌리고 언니를 보러 한국에 나왔다. 그러잖아도 작은 몸이 수술 후 더 작아진 언니를 보며 “하나님, 이 일은 또 무엇인지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하면 수많은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복도를 지나간다. 웬 아픈 사람들이 그리도 많은지 모르겠다. 코비드 때문에 아직도 병실로 방문을 할 수는 없고 그나마 출입이 가능한 환자들은 방문객들을 만나러 병실 밖으로 잠깐 나와서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언니들 모두 아픈 동생을 위해서 매일 음식을 준비하고 병원으로 나르며 애를 쓰지만, 언니는 때로 마음이 약해진 모습을 보인다. 수술 후 온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염려, 근심 때문에 언니의 마음은 많이 복잡한 것 같다.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언니를 보며 내 마음도 힘을 잃고 흔들리려 해서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느라 애쓰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언니에게 기도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그리고 시간과 정성을 쏟은 돌봄일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살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 뜻에 다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니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한다. 물론 좋은 의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신앙적으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었지만 곁에서 듣는 나도 화가 나려고 하는 배려가 부족한 말이다.

헨리 나우웬은 차별화를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뛰어나야 한다는 경쟁의식 속에 빠진 우리에게 인간됨의 공동 연대의식은 우리가 지닌 연약함에 갖고 진정한 목소리로 말한다. 인간은 연약함을 통해 연대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뿐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깨우친다. 연약함의 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안의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쉽게 깨어질 질그릇 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때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서로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그다지 소망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때, 마음이 무너져내려 한없이 슬플 때 누군가가 함께 함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다.

주여, 연약함의 한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고 주님만 바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lpyun@apu.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and Hawaii.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인생의 고기를 잡지 못해도

운전하며 가다가 한국 라디오 방송을 켜었습니다. 방송하는 내용이 바다낚시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LA 근교에 자녀들과

함께 만나절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바다낚시가 있다고 출연자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한 번 바다낚시를 가야겠

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매주 화요일에는 반 값에 바다낚시를 할 수 있다는 소개가 기필코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들을 데리고 바다낚시를 하기 위해서 데이나 포인트로 가서 배를 타고 출항하는데 설레임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낚시의 경험이 없어서 낚시대의 줄에 낚시 바늘과 추를 설치할 줄 몰라서 배에서 낚시할 준비를 마치고, 탁트인 바다의 물결을 치고 나가는 배의 선상에 서서 고기를 잡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선장이 배를 멈추고 낚시를 해도 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낚시를 시작합니다. 조카들과 함께 낚시 바늘에 오징어 미끼를 끼우고 바다로 낚시줄을 던집니다. 잠시 뒤 고기가 미끼를 먹는 느낌이 오자 낚시

줄을 감아서 올리자 30인치 정도의 불락이 올라옵니다. 조카들의 낚시대에도 고기들이 잡혀서 올라옵니다. 낚시를 하는 3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고기들이 잡혀 주었습니다. 바다낚시의 재미와 즐거움을 아내에게도 경험하게 해 줄 겸 또다시 바다낚시를 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아내와 친구 목사님들과 같이 바다낚시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데이나 포인트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우리가 잡은 고기들로 풍성한 식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하며 배를 타고 나갑니다. 낚시를 할 장소에 이르자 희망을 가지고 낚시줄을 던집니다. 고기들이 미끼를 건드리는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선장이 배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다른 장소로 옮겨 1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고기를

이 잡히지 않습니다. 당황한 선원들은 작은 고기와 오징어 미끼를 바다에 뿌립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바다사자가 낚시 장소를 맴돌면서 미끼가 바다 속으로 내려 가기도 전에 다 먹어 치웁니다. 결국 선착장으로 되돌아 오는 동안 우리 일행은 점으로 가져 갈 수 없는 작은 불락 한 마리씩만 잡은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일전에는 거짓말과 같이 낚시줄을 바다에 던지지만 해도 고기들을 잡아 올렸는데, 이번에는 합흥차사였습니다. 아내와 친구 목사님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싶었던 나의 계획은 산산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모든 일이 내 의지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은

때로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기가 잘 잡히는 날도 있고, 안 잡히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뜻을 바를 섭리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고기를 잡지 못해도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고 있는 삶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syrchurch@gmail.com



아주사 부흥현장을 방문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집행부 주관, 목회자 순례기도회

부흥운동의 역사 공부와 부흥을 위한 기도회

다민족 연합기도대회(대회장 한기홍 목사) 집행부가 주관한 '남가주 부흥성지 순례기도회'가 13일(월) 남가주목회자와 교계 단체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번 기도회는 남가주에 있는 부흥운동의 역사 공부와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결합한 복합 프로그램이었다.

강태광 목사의 인도로 드러진 순례기도회 개최예배는 한기홍 목사의 환영인사, 강승영 목사(실행위원장)의 일정 안내와 합심기도, 이종용 목사(공동대회장, 코너스톤교회)의 마무리 기도로 진행됐다.

이날 순례기도회는 부흥성지에 대한 역사와 의의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장 기도회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부흥의 현장과 역사 현장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빌리그레함 집회장소(박용덕 목사), 아주사 부흥현장 기도회(심상은 목사), Bonnie Brae House 기도회(민경영 목사), 시정통과하며 미국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회(이서

목사), Griffith 전망대에서 드리는 LA 축복 기도(김은목 목사), 대학생과 대학가 부흥기도(오운태 목사), 할리우드 장로교회(김기동 목사), 할리우드 문화 예술(김영구 목사)을 위해 기도했으며 점심 식사를 위해 김영일 목사가 기도했으며 한기홍 목사(미주 CBS 대표)의 폐회 기도도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점심 식사후 나눔의 시간을 통해 "뜻 깊은 시간이었다. 교회와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 부흥의 불길을 이어가기를 원한다. 성도들을 인솔해서 부흥의 현장을 방문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정리 이성자 기자)



성서장로교회 창립54주년 감사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이 축하송을 부르고 있다.

성서장로교회 창립 제54주년 기념 예배 드려

"지조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성서장로교회(담임 정종일 목사) 창립 54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2일(주일) 오전 11시 온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했습니다. 정종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정몽철 장로기도, 나만주 목사(초대 담임목

사)설교로 진행됐다. 나만주 목사는 '정답'(마태복음 16:13-20)이란 제목으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한 대답을 했다'고 말하며 "지조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사론 목사의 몸 찬양과 EM이 준비한 하모니카 연주, 정지운 목사의 시낭송을 통해 창립 54주년을 축하했으며 김병용 목사(2대 담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온 성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 이성자 기자)

춘광교회 설립감사예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될 것"

춘광교회(담임 조희연 목사) 설립감사예배가 지난 4일(토) 오전 11시에 청지기교회 예배당에서 가졌다. 조희연 목사는 "2020년부터 제 마음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바램이 있었다. 그 목적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다. 춘광교회는 하나님께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과 '지혜의 마음'을 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상처받은 이들의

영혼과 육체를 돌보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역하려고 한다"며 "춘광교회는 '저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하자'라고 말하는 세상의 언어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만큼 성실하게 살아내어 각 분야에 그리고 각자의 삶에 진정한 리더가 되고 그런 우리가 모여 건강한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사역을 감당하겠

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장백석 캘리포니아노회 회계 최재민 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한승범 목사가 기도했으며 노회장 연제선 목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눅 22:31-3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조희연 목사가 설립과정을 보고했으며 연제선 목사가 설립을 선포했다.

조희연 목사는 아주사퍼시픽 신학교에서 M.Div., Southern California Seminary 에서 M.A(Marriage and Family Therapy)와 PsyD(Psychology)를 취득했으며 2020년 10월 미

육군 군목으로 임관하여 사역하고 있다. 교회장소는 960 Atlantic Ave. Long Beach, CA 90813이며 예배는 주일 9시.

자세한 것은 (813)373-8418로 문의 하면 된다. (기사제공: 춘광교회)



춘광교회 설립감사예배에서 조희연 담임목사가 답사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raith, Daemin, Donggore, Baskin, Bannell, Boston, Saesung, Senehan, Ilan, Akerly, Youngsang, Killeen, Winstone, Tacoma, and others.

동부교계 기사판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뮤지컬 '사도바울'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는 그리스도께 부름 받아 복음전파에 온 삶을 불태웠던 '사도바울' 뮤지컬을 3월25일(토)부터 26일(주일)까지 오후 7시에 공연한다.
▲ 문의: (718) 229-0858

퀸즈한인교회, 2023 VBS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 2023 VBS가 "Twists & Turns"라는 주제를 가지고 4월11(화)부터 14일(금)까지 9:30am-12:45pm에 열린다. 대상은 PreK 3세부터 5학년까지이며 등록은 3/19까지, www.kcqn.org/vbs 에서 등록하면 된다.
▲ 문의: (718) 672-1150

뉴욕장로교회, 봄 부흥사경회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 봄 부흥사경회가 3월17일(금)부터 3월19일(주일)까지 백준신 목사(블티모어 벨앨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하여 "디아스포라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열린다.
▲ 문의: (718) 706-0100

프라미스교회 에셀브릿지 썸머캠프 및 방과후학교 학생모집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 에셀브릿지 썸머캠프가 7월5일(수)부터 8월11일(금)까지 6주간 열린다. 일반등록은 3월13일(월)부터 5월26일(금)까지이며 등록비는 \$1,200이다. 방과후학교는 7월5일부터 8월11일까지 6주간 열린다. 등록은 3월5일(주일)부터 5월26일(금)까지이며 9월 학기 등록자에 한해 무료이다.
▲ 문의: 크리스천스쿨(718)461-4409
방과후 학교 김수잔 전도사(917)396-6386

뉴저지청년연합집회 with 청년다니엘기도회

뉴저지청년연합집회가 3월29일(수)부터 3월31일(금)까지 오후 7:30 필그림선교회(담임 양춘길 목사) MC글로리홀에서 김동환 장로(삼프로TV대표), 김명선 전도사(시선작곡), 주성하 목사(다니엘기도회운영팀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믿음의 위라벨'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 문의: 201-461-1225

뉴욕총영사관, 퀸즈지역 순회영사서비스

뉴욕총영사관은 3월31일(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뉴욕퀸즈한인회(163-07 Depot Rd. #B1)에서 순회영사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업내용은 여권발급신청, 영사확인, 가족관계등록, 병역업무(국외여행허가신청 등), 국적관련업무(국정상실, 이탈 등), 재외국민등록, 비자발급신청 등이다. 민원업무별 구비서류 및 수수료는 뉴욕총영사관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비스는 사전예약자에 한해 제공된다.
▲ 서류문의: minwonny@mofa.go.kr

임마누엘 스포츠선교회, 무료축구교실

임마누엘 스포츠선교회(전태호 목사) 무료 축구 교실 어린이를 모집한다. 무료 축구 교실은 퀸즈 베이사이드 레이먼드 오코너파크(Raymond O'Connor Park)에서 4월11일부터 6월20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5-6세는 오후 3시15분부터 1시간 동안, 7-10세는 오후 4시20분부터 1시간 동안 각각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5-6세 10명, 7-10세 10명이다.
▲ 문의 929-383-9191



뉴욕노회 제92회 정기노회 중 단체 사진을 찍었다

KAPC 뉴욕노회 제92회 정기노회

퀸즈장로교회 허장길 목사 안수식

미주한인예수교장로교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이윤석 목사)는 제92회 정기노회를 3월 14일(화) 뉴욕주은혜장로교회(담임 임병순 목사)에서 가졌다. 개회 예배는 노회장의 인도로 시작되어 기도 방정훈 목사(부서기), 성경봉독 박병섭 목사(부회록서기), 설교 임병순 목사(부노회장), 김성국 목사(전노회장) 성찬 예식 인도, 이종원 목사(직전 노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임병순 목사는 "천국 잔치(누가복음 14:1-4)"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이번 노회는 KAPC 총회를 뉴욕에서 준비하는 가운데 열린 노회로서 의미가 크며, 우리 노회의 모임이 하늘의 천국 잔치와 같이 드러지는 성노회 되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뉴욕노회는 노회장 이윤석 목사의 사회로 회무처리를 진행하여 임원 공천을 통해 노회장 임병순 목사, 부노회장 임영건 목사

(열린교회), 서기 방정훈 목사(큰기쁨교회)와 부서기 정인수 목사(뉴욕종은교회), 회록서기 박병섭 목사(뉴욕선교회)와 부회록서기 서욱석 목사(우리반석교회), 회계 차상남 장로(퀸즈장로교회)와 부회계 박정봉 장로(퀸즈장로교회)를 공천했으며 ▲새별별주님교회(담임 정기태 목사) 허 준 목사의 부 목사 시무 청빙 허락 청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허장길 전도사 목사 안수 후 부 목사 청빙 허락 청원 ▲퀸즈장로교회 임지훈 씨 목사 후보생 고시 허락 청원 ▲퀸즈장로교회 장로 5명 증택 청원 ▲2024년 제94회 정기노회부터 부노회장을 당분간 임시부원 중에서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목사 안수식이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려 퀸즈장로교회 허장길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김재상 기자)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퀸즈한인교회, 목회자 및 사모를 위한 세미나 열려

이재철 목사, 정애주 사모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3월 13일(월) 오전 9시 목회자 및 사모 세미나를 열었다. 강사 이재철 목사(100주년기념교회 원로)는 3월 10일부터 퀸즈한인교회에서 3일

동안 '자기 점검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부흥사경회를 가졌다. 오전 시간에는 이재철 목사의 아내이자 전 흥성사 대표인 정애주 사모가 '여전히 잠인 31장'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눈으로 본 일기 세미나를 통해 현속한 사모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사모로서의 경험을 전했으며 간증의 나눔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 계속 된 세미나에서는 이재철 목사는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김재상 기자)

뉴욕장로교회, 눈물의 장로 임직식

김준엽, 홍성로, 방용복, 박상우, 김선신 5명 장로 임직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장로임직 감사예배를 3월 12일(주일) 오후 5시에 드렸다. 본 임직식을 통해 김준엽, 홍성로, 방용복, 박상우, 김선신 5명을 장로로 임직했다. 감사예배는 인도 김학진 목사, 기도 이준성 목사(뉴욕교협 회장), 찬양 연합성가대, 설교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앞에서 나아가 나라(여호수아 3:14-17)"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새롭고 아름다운 역사를 써 가는 역사의 날에 서었다. 뉴욕장로교회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하며 소원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진행된 장로 임직식을 통해 서약, 안수, 공포, 임직패 수여의 순서를 진행했다. 김학진 목사는 임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

하고 충성되고 겸손한 종들로써 주의 심장을 지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에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교회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나아가는 멋지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류영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백신종 목사(벨앨교회), 김바나바 목사(퀸즈한인교회)가 영상축사를 했으며 이용걸 목사(영생장로교회 원로)가 영상 권면을 했다. 이종식 목사(베이사이드장로교회)는 축사를 통해 "뉴욕의 대표성을 가진 교회에 임직한 장로들을 축하하고, 뉴욕장로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것처럼 뉴욕교계 평신도들의 리더가 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준엽 장로는 눈물의 답사를 통해 "장로직분이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무겁고 쉽지 않은 자리이기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답사를 전했다.
(김재상 기자)



장로임직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아름다운교회 담임목사 위임식에서 계재광 목사가 소감을 전하고 있다

아름다운교회 3대 계재광 담임목사 위임식

"성도들이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아름다운교회 3대 담임목사 계재광 목사 위임식이 3월 12일(주일) 오후 5시에 열렸다. 계재광 목사(53세)는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와 서울 소망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하다 청빙을 받았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인교회인 아틀란타와 나성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바 있다. 계 목사는 한남대학교(BA), 장로회

신학대학교(M.Div, Th.M.), 예모리대학교(Th.M.), 풀러신학교(Ph.D)에서 공부했으며, 예장 통합 서울동노회에서 2001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아름다운교회 담임목사 위임식에는 이날 위임하는 3대 계재광 담임목사 외에 1대 립형천 목사(잠실교회), 2대 황인철 목사(홀러톤장로교회)가 직접 참가하여 축사했다. 계재광 목사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교회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소망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밖에 나가 교회를 정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되도록 한마음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원로목사회 19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원로목사회 19차 정기총회 열려

원로목사들은 동포사회를 발전시킨 원동력

뉴욕원로목사회 19차 정기총회가 3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산수갑산2 연회장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사회 이병홍 목사(총무), 기도 정익수 목사, 설교 이준성 목사(뉴욕교협 회장), 헌금기도 김원기 목사, 축사 김흥석 목사(뉴욕목사회 회장)와 변

종덕 이사장(21세기희망재단), 인사 소의섭 목사(의장대행), 광고 송병기 목사(서기), 축도 김종원 사관(직전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준성 교협 회장은 "시대의 표적(마태복음 16:1-4)"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심각한 시대상을 조명하고 영적

으로 각성하여 시대의 표적을 구하여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원로목사님들이 다 되기를 기대했다. 김흥석 목사회 회장은 원로 목사들에게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나누며 강권하기를 축복했으며,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인생의 첫날같이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원로들이 되기를 간구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p>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p>	<p>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p>
---	---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APC 남가주 노회 제 72회 정기노회

노회장 양경선 목사 부노회장 이황영 목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총회장 홍기표 목사) 남가주노회(노회장 이동진 목사) 제 72회 정기 노회가 7일(화) 오전 10시 남가주기쁨의교회(담임 이황영 목사)에서 열려 신임 노회장에 양경선 목사를 선출했다.

노회에 앞서 이동진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이황영 목사 기도, 최경철 목사(에벤에셀교회) 성경봉독, 설교 양경선 목사로 진행됐다. 양목사는 '변화해야 합니다'(로마서 12:2)란 제목으로 "우리 노회



제 72회 남가주노회 신규 임원 교체식 신임노회장 양경선 목사(중앙 좌)와 전임 노회장 이동진 목사(중앙 우)

가 변화하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

고 끊임없이 변화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리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했다.

(이성자 기자)



마이키즈 월드 제4차 이사회 대회에서 김판정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마이키즈 월드 제4차 이사회 대회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

생명을 사랑하는 마이키즈 월드 제4차 이사회 대회가 12일(주일) 오후 3시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에서 열렸다. 신원규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박용일 목사(전 OC목사회장)가 기도한 뒤, 좋은마을교회 여성중앙단이 특송했다. 이어 영감 가수 40지구 연방하원의원이 축사했으며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어 김판정 목사(광주 샘물교회)가 '선교의 환상을 보라(행 16:6-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판정 목사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다. 그것을 다 안다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1000만분의 1 정도 알 뿐"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선교가 힘들고 어렵다.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과 후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

는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나 혼자 행복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 하실 것을 믿으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샘신 목사(샘커피무니티교회)의 격려사, 엘빙턴 지미 도널드 목사(분회 이사), 심상은 목사(OC교회회장), 네이트 알렌 목사(분회 이사)가 축사했으며 지용덕 목사(미주양곡교회)와 신남식 목사(러브미션대표)를 이사로 추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김범택 목사의 색소폰 특별연주가 있던 뒤 이동훈 목사(덴버 디비전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김준섭 목사)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가 지난 5일(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졌다. 김준섭 목사는 "창립50주년이 되었다. 우리교회가 어스틴 땅에 세워진 지난 50년의 시간을 생각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인도자이신 성령께서 50년 전 어스틴 땅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오셨다. 우리교회는 50주년 슬로건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로 정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교회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섭 목사 사회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는 최병호 장로가 기도했으며 김준섭 목사가 '온전한 말김(요한복음 21:15-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인생은 베드로 자신이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감격적인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한 뒤에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셨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출발은 내 삶의 주인 됨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 말하며 "우리교회 주인됨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출발점이 된다. 우리공동체가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은 또 다른 50년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엘 무어 목사(ECO 텍사스 노회장, 샌앤젤레로 제일장로교회 담임), 고태형 목사(ECO한인교회 코디네이터, 선한목자교회 담임), 이승태 목사(전 어스틴한인장로교회 담임)가 영상으로 축사했다. 박정도 목사(어스틴한인장로교회 설립담임)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김중대 목사(전 어스틴한인장로교회 담임)의 축사와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에서 김준섭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OC교계기관연합 주최 김양재 목사 말씀집회

"말씀 붙들면 분열과 갈등은 치유"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초청 말씀집회가 8일(수) 오후 7시30분 갈보리선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갈보리선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심상은 목사 사회로 시작된 말씀집회는 박재만 목사(마리클포인트교회/OC교회부회장)가 기도했으며 OMC선교협합단(지휘 강민석)이 특별 찬양했다. 이날 김양재 목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사 43: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우리가 말씀생활을 해야 하지만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가 회복될 때 말씀이 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큐티를 함에 있어서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 교회에서는 큐티를 삶에 적용해 나가며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진행했더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교회가 비록 휘문고등학교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고 교회까지 오는 교통편이

열악한 편이지만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며, "이는 복음 외에 길이 없다는 것이며 말씀을 붙들게 되면 분열과 갈등은 치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말씀에 이어 바리톤 김정호 전도사(가스펠교회)가 특송을 했으며 김양재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원석 목사(OC목사회장)의 찬양인도와 율우경 권사(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이사장) 사회로 오전 10시에 열린 큐티세미나에서는 이선자 목사(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가 기도했으며 심상은 목사(OC교회회장)의 환영인사가 있었다. 이어 강단에 오른 김양재 목사는 '말씀이 들리는 축복(룻기 1:1-6, 19-2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소망소사이터티 중앙단(단장 테보라 리)이 특별찬양을, 김기동 목사(세리토스총만교회/OC교회 겸경회장)가 마침기도를 했다.

(박준호 기자)

JMS, LA서도 세력 확장

최근 한국의 사이버 종교와 교주의 실체를 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교주 정명석)가 LA를 비롯한 미주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 3월8일자 종교판 기사에 의하면 JMS교주 정명석 씨는 현재 한국 등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

특히 JMS는 UCLA 등 대학 캠퍼스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

는가 하면 축구대회, 밸런타인 데이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영문 웹사이트를 통해 젊은 층과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교세를 넓히고 있다.

JMS의 홍보 사이트 중 하나인 '만남과 대화'에 따르면 'Lord's Light of Life Church(주님의 생명의 빛 교회)'는 지난 2013년 중부부터 UCLA에서 포교 활동을 펼쳤다. JMS는 대학생들에게 뇌 건강 등 자기계발을 구실로 접근했다. JMS는 설립 초기인 1980년대 당시 한국의 유명 대학가를 돌며 포교 활동을 펼친 것과 유사한 전략을 펼친 셈이다. 교주 정씨는 평소 설교 등을 통해 뇌신경 습관의 훈련을 강조해왔다.

JMS는 가주에서 교인 축구대회도 진행했다. 참여한 JMS 교회들을 보면 뉴호프(LA), 베델(LA), 더 락 처치(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주웰처치(가주), 이글 처치(휴스턴) 등 상당수의 JMS 단체가 미주 지역에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다.

LA지역 'New Hope Ministries(새희망사역회)'라는 곳에서는 지난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사랑의교회 간사모집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영상제작 간사(풀타임), 주말 야간 및 새벽 사무실 간사(파트타임)를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이다.

▲ 문의: 정승대 행정목사 (714)772-7777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 부흥회

아이에아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새봄말씀부흥사 경회가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일정은 24일(금) 저녁 7시, 25일(토) 새벽 5시30분, 저녁 7시 26일(주일) 예배시간

▲ 문의: (808)488-3018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김준섭 목사) 창립 50주년 기념 부흥회가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한번 인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4일과 25일 오후 7시30분, 26일 1부 8:30, 2부 11시이다.

▲ 문의: (512)454-1727

사랑성결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식

사랑성결교회는 권다윗 원로목사 추대식 및 윤석길 담임목사 취임식을 19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 문의: (714)600-7760

강찬 목사 찬양간증 집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강찬 목사 찬양간증 집회를 19일(주일) 오후 1시에 갖는다.

▲ 문의: (213) 949-1690



뉴게이트 글로벌감리교회 46주년 기념예배에서 취임한 권사들

뉴게이트 글로벌감리교회 46주년 기념 및 취임식

"모든 직분자들에게 소명이 있음을 잊지말자"

뉴게이트 글로벌감리교회(구 성누가연합감리교회 담임 소정일 목사) 46주년 기념 및 권사 취임예배가 지난 5일(주일) 오후 4시에 있었다. 소정일 목사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취임예배는 김주일 목사(웨이크 주님의교회)가

기도했다. 이어 스티븐 슈미트 감리사가 창립46주년을 축사했으며 찬양대 찬양이 있었다. 이날 이성철 목사(달라스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섯 가지 원칙(창 1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성철 목사는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며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에덴에서 다섯 가지 삶의 원칙이 있었다"며 "권사로 부임하는 모든 분들이 다섯 가지 원칙이 삶의 원칙이 되기 바란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셋째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넷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정일 목사 집례로 열린 권사 취임식에서 소정일 목사는 "모든 직분자들이 소명이 있다. 교회가 든든하고 단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단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권사취임식은 17명이 권사로 취임했다. 취임패 증정 후 안수기도했으며 조나혼 목사(달라스북부중앙교회)가 마침기도했다. 이어 은혜권사 추대식이 있었다. 이어 합심기도했으며 임찬순 목사(커버넌트 연합감리교회)가 마침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본교회 버젯이 활동하며 수천 명씩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2013년에 '생명의 날' 행사도 진행했다. JMS에 따르면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인간의 창조 비밀과 생명의 소중함 등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지회가 동시에 진행하는 행사가 생명의 날이다.

이밖에도 만남과 대화에는 뉴욕의 'One Light Church(하나님의빛교회)' 목회자가 한인 2세 청소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 글을 작성한 성동민 씨는 "뉴욕 조셉 목사의 아이디어로 월명동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가주 지역의 접근했다. JMS는 설립 초기인 1980년대 당시 한국의 유명 대학가를 돌며 포교 활동을 펼친 것과 유사한 전략을 펼친 셈이다. 교주 정씨는 평소 설교 등을 통해 뇌신경 습관의 훈련을 강조해왔다."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한선희 목사는 "한인 교계 목회자들이 이단, 사이버 문제에 매우 둔감한데 미주 지역에는 이미 많은 이단 단체들이 진출해있다"며 "개신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 구원파 등의 교회는 이미 미주 지역에서 버젯이 활동하며 수천 명씩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한 몽골인 사역에 20여년 헌신...

유해근·임은빈 목사, 몽골서 최고 훈장 받아

몽골울란바타르문화진흥원(원장 유해근 목사)은 이사장인 임은빈(미래를사는교회 원로) 목사가 최근 몽골 정부로부터 북극성 훈장을 받았다. 13일 밝혔다. 지난해 유해근 원장의 수훈 이후 두 번째다.

북극성 훈장은 몽골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 가운데 외국인 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훈장으로 몽골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이들에게 주어진다. 2001년 설립된 진흥원은 한 국사회에 몽골 문화를 소개하

고 몽골 이주민 사역을 펼치고 있다. 재한몽골인 축제를 비롯해 몽골문화교육, 몽골어학당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만난 유 원장과 임 이사장은 “이 주민을 위해 헌신했던 보상이 것 같아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유 원장이 이사장으로 몸담고 있는 재한몽골학교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과 몽골 교육 부에서 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600명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인사를 받고 돌아간 학생들이 헌신에 복음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우리 가까이 온 북극의 대상자들을 먼저 품고 기도하는 사역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은교회 세우는 4박자 '말씀·멘토링·교제·전문 세미나'

기독교한국침례회,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부 연합해 KIM세미나 개최

13일 오전 대전 중구 은포침례교회(이음 목사) 본당에 전국에서 온 100여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모였다. 이들은 이음 목사의 '모세오경' 강의를 들으며 메모하거나 강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는 등 집중했다. 이목사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주요

제사를 소개하면서 번제단 성막 등을 그림으로 그렸다. 레위기 전체 주제와 각 장 주제를 그림과 함께 설명하니 레위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목사는 “목회자들이 세미나 기간 레위기 등 모세오경의 맥을 잡고 이후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진행할 때 유의할 것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 국내선교회(회장 유지영 목사)가 주관한 제5회 KIM세미나였다. 15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는 세미나는 작은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주일식 세미나가 되지 않도록 참석자들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간증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유지영 회장은 “코로나 기간에도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흔들림 없이 오히려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됐다”며 “세미나는 일회성 세미나에 그치지 않는다. 세미나 후 신청자에 한해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부(IMB) 선교사 등과의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경 중심 사역에 재부흥 실마리”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콘퍼런스'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재부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 충현교회(한구삼 목사)가 11일 개최한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학술 콘퍼런스'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초기 한국교회가 주는 역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성경 기독교'의 의미를 설명하며 변하지 않는 성경의 가치를 강조했다. 성

경 기독교는 19세기 말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들이 이미 한글 성경이 일부 보급된 걸 보면서 한국 기독교를 향해 '성경을 사랑하는 이들의 신앙 공동체'로 표현했던 걸 말한다. 이 교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초기 한국교회는 신앙적인 면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견인했다”면서 “한국교회가 자랄 수 있는 영적인 토대도 바로 성경이 한국사회

에 널리 보급되고 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경 기독교'적인 한국교회 전통은 우리 사회의 개혁과 항일 독립운동, 민주화·통일운동에도 크게 이바지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면서 “성경 중심으로의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수 전통교회로서 시대적 역할을 강조했고, 하광민 총신대 교수는 충현교회에 통일 한국을 위한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충현교회는 1953년 설립 이래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이라는 5대 목표 아래 성장한 대표적인 교회다. 한구삼 목사는 “학술 콘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며 우리 교회가 매력 있는 보수교회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기반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JMS 내부 총질?... “교주 반경 3m에 여자 못 오게 했다”

JMS 2인자, 정명석 성범죄 인정... “알았으나 알았어도 몰랐다”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만은 없다.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진실을 쳐다볼 수 있어야 한다.” 교주가 성범죄자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나온 말이다.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의 발언이다. 교주 정명석의 성 착취 실체를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내용을 2인자가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다. 13일 오전 JMS 공식 유튜브 채널인 'PalmTV'에는 33분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선 전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MS 교회 지도자 모임에 참여

한 정씨가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다. 정씨는 JMS 내부에서 '성령 상징체'로 통한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정명석을 위해 사는 여신도 모임인 '상록수' 소속이었던 정씨는 '사도' 직을 거쳐 2006년 정명석에게 성령 상징체란 이름을 부여받고 2인자로 활동해왔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정씨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2008년까지 10년간 수감된 교주 정명석을 대신해 조직을 관리하기도 했다. 영상 속 정씨는 교주의 범행 행각을 지적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될 정도로 육(肉) 사람을 지키고 영(靈) 사람을 먼저 하여 창조 목적을 이뤄가는 게 우리 섭리사의 최고 교리다. 그러나 이 절대적인 뜻을 수십 년이 넘도록 은폐하며 겉으로 영 사람을 말하고 실제로는 육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교단 대표는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막았다”고 폭로했다. 교주의 성범죄에 대해 선을 긋는 발언도 이어졌다. 정씨는 “3년 6개월간 선생님(정명석)께 (육 사람은) 절대 뜻이 될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나는) 여자들이 선생님 반경 3m 이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며 “아직 어려서 모를 때 분위기에 휩쓸린 적 있는데 현재는 회개하고 있다. 지난 과오가 있다면 청산할 최고의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한편 JMS 측은 장로단 명의의 입장문을 이날 내고 정씨의 예배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또 정씨의 교회 내 비위를 비판했다. 정씨의 이번 폭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씨가 'JMS 내부 권력을 잡아 또 다른 신흥 종교로 뺏어 나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감리교회 세계선교대회’ 내달 23일 개막

“다시 일어나, 선교와 부흥으로!” 를 주제로 열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성동구 꽃재교회(김성복 목사)에서 '2023 감리교회 세계선교대회'(포스터)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감 선교국이 주최하고 감리회세계선교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다시 일어나, 선교와 부흥으로!' 를 주제로 열린다. 행

사에서는 영상 집회와 선교 박람회, 각종 분과 모임, 소천 선교사 추모 예배 등이 예정돼 있다. 기감 파송 선교사는 물론이고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론 이용하고 모략 포교 강화하고... 더 독해진 신천지

신천지 감추고 접근, 모략포교,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영역 넓혀

국내 이단·사이비 단체 가운데 '이단의 핵'으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의 포교 공세가 거세다. '언론 포교'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데 이어 기존의 '모략(속임수) 포교'도 재개하면서 활동 반경이 전방위적이다. 14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 전국신천지 피해자연대(전피연·신강식 대표)와 신천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교주가 총회 내부 임원의 성폭력 혐의를 알고도 감추려 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토대로 이교주를 비롯해 혐의 당사자들을 고발했다. 최근 신천지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가 주요 일간지나 방송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언론을 통한 신천지 포교는 이전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인식됐던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고 포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언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탁지일 부산성신대 교수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언론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많은 수천만원을 들여

버젓이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공개적인 포교 방식을 통해 대중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면서 일종의 '에펠타 효과', 즉 처음에는 비호감이었지만 자주 접하게 되니 호감을 느끼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천지라는 사실을 감춘 채 접근하는 모략 포교도 다시 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신천지 포교 방식에 면죄부를 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신현우 구리이단상담소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신천지가 각종 소송 승소와 정치적 상황 등 여러 면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대중 및 교계를 향한 공격적인 포교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폐쇄됐던 위장카페와 복음방 센터, 위장교회 등 비밀 교육장도 다시 열면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신천지의 포교는 유튜브, 줌 등 온라인으로 포교 영역을 넓히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포교'를 기반으로 다음세대인 청년들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피종진 목사 3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겸 문화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수)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람 목사) 010-8331-3431
2(목) 오전 서울통합센터 UEN 국제재단 (이사장 정해경)
3(금) 오후 서울신학교(학장 김준환 목사) 주최:World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교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010-7567-8291
서울 세운예수 올림피아대강당 주최:(사)세계문화총연합회 (이사장 한장석 목사) 010-3927-0691
4(토) 오후 무안 중앙교회 (안창남 목사) 010-2471-6266
철원 성소기도원 (원장 박정연 목사) 010-9261-2922
10(금) 오후 부천 예림교회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서울 임마누엘교회 (남윤정 목사) 010-3234-1623
주관:한국부흥사회 (대표회장 정민철 목사) 010-2342-2345
11(토) 오후 국제신학교 (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12(주) 저녁 광주 푸른초등학교 (김동영 목사) 010-3770-5279

제 228차 해외성회 (228th Overseas Assembly)
(JAPAN) 동경 나라타 총회신학 (학장 정스대반 선교사)
(JAPAN) 동경 나라타 사랑의교회 (정스대반 선교사)
(JAPAN) 동경 Carmel 기도원 (원장 김태실 목사)
(JAPAN) 동경 우에노공원 야외전도 집회 및 특별행사 (일본 선교회) 귀국

20(월) 오후 일산 예수찬양교회 (전옥영 목사) 010-2773-2365
21(화) 오전 인천 행복오가는교회 (최기석 목사) 010-5278-0065
22(수) 오후 서울 강남반석기도원 (강사람 목사) 010-8331-3431
포천 엘리자베스교회 (원장 강민호 목사) 010-3247-9392
주최:한국기독교 연합부흥사회 (서재은 목사) 010-7142-2548
23(목) 저녁 서울 위대한한국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24(금) 오후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김중성)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25(토) 오후 한국기독교여성총연합회 (대표총재 권영자 목사) 010-5603-4997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회관
26(주) 오전 서울 주사랑교회 (박상호 목사) 010-2343-7003
27(월)~29(수) 포항 샘물교회 (박민정 목사) 010-3739-4442
30(목) 오전 한국 기독교부흥협의회 지도자회 남서울중앙교회
31(금) 오전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람 목사) 010-8331-3431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 원로목사회 (회장 피종진 목사) 010-3162-8580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외로운 섬 마을 사역 서로 보듬은 지 20년”

8개 교회 사모들 ‘조도 사모 기도회’ 구성하고 동역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배로 40분 이상 들어가면 조도군도를 만날 수 있다. 작은 섬 150여개가 새 떼처럼 흩어져 있다고 해서 ‘조도(鳥島)’라는 이름이 붙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다도해지만 인구는 2000명 남짓, 겨울에는 오후 5시만 되면 배가 끊기는 외로운 곳이다. 이곳에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동지를 틈 가운대, 상조도와 하조도 인근 8개 교회 사모들이 모인 ‘조도 사모 기도회’는 올해로 20년째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낙도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조도 사모 기도회’는 2001년 이곳에 부임한 강미자(65) 조도중앙교회 사모로부터 출발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모들이 속마음을 터놓고 나누며 매달리자는 취지였다. 강 사모 외에 김영숙(상조도순복음교회) 김성혜(상조도침례교회) 이용자(옥도교회) 김추향(조도순복음교회) 엄순옥(군우교회) 이제라(화평낙도선교센터) 김혜영(나배도교회) 사모가 기도회 구성원이다. 강 사모는 “사모들이 일주일

에 한 번씩 모여서 묵히 어려움에서부터 남편과 자녀 걱정까지 터놓고 기도한 것이 벌써 20년”이라며 “사모들이 먼저 친해지니 남편들도 자연스럽게 깊이 교제하게 됐다. 내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교회들 사이가 대면대면했는데 지금은 서로 친밀하게 동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들의 동역은 기도회에 그치지 않았다. 다음세대를 위해 힘을 합친 것이다. 8개 교회 중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는 3곳뿐이었는데, 함께 예배드리며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모였다. 그 결과 ‘조아조아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매 주일 연합 교회학교가 열리고 있다. ‘조도 사모 기도회’는 오는 20일 전남 목포시 사랑의교회(백동주 목사)에서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 지난 20년간 조도에서 사역하며 모임을 거쳐 갔던 사모들이 모두 모임 예정이라 기대가 크다. 사모들은 복음화율이 10%에 불과한 조도면에 복음이 파도처럼 넘치는 날을 꿈꾸고 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29)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더 좋은 지역교회의 선교프로그램을 향하여

지역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다. 복음이 전파되면 개인의 변화로 나타나고, 그 개인들의 모임이 형태를 잡아가며 결과로 나오는 것이 지역교회이다. 지역교회의 모든 활동의 결과는 복음의 전파로 나타난다. 이 복음전파가 지역적, 문화적 근거리에서 이루어질 때 전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교라고 부른다. 최근 많은 교회가 선교를 더 잘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개교회 선교프로그램을 발전 시키기를 원하고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다. 개교회의 선교프로그램 발전을 위하여 선교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 좋은 지역교회 선교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선교현황을 측정해볼 필요가 있다. 교회의 모든 교인들을 상대로 조사하여 교인들이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많은 경우에 교회의 일반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교참여의 현실일 수 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선교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와 사역이 어떤 곳이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선교사의 구체적인 이름을 알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선교지에 어떤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선교사의 개인과 가정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등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가는 질문들을 통해

서 교인들의 선교 참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좋은 지역교회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하라. 일반적인 성도들은 체계적인 선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다. 기본적인 선교 이해를 시작으로

있다. 현재 가장 전문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퍼스펙티브스이다. 1974년 로잔대회 이후 어바나 선교대회에서 선교에 헌신한 젊은이들을 선교지에 나가도록 연결할 필요를 느끼고 랄프 윈터박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일반 성

중화하여 비서구권의 교회들에게 확산되어진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컨넥션스쿨, 카이로스, 퍼스펙티브스 같은 좋은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담임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선교의 중요



선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회가 제공하여야 한다. 간단하면서 한국교회의 실정을 감안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대학생선교회 (CCC)에서 만든 컨넥션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먼저 교사 훈련을 받고 나면 일반 성도들에게 컨넥션스쿨을 강의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어서 특정한 강사를 초청하여 매번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다.

도들이 잘 배우기는 너무 과도한 느낌이 있는 프로그램이며,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강사를 초청해서 들어야 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개교회가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보급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컨넥션스쿨과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퍼스펙티브스 프로그램을 요약해서 발전시킨 카이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카이로스는 오랜 동안 가장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자리잡은 퍼스펙티브를 간략하게 줄인 것으로 대

성을 가르치는 것 다음으로 지역교회 선교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또한 개교회의 선교정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랄프 윈터박사는 전도와 선교에서 거리감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E0-E3, M0-M3라고 표현하여 이해를 쉽게 하였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도를 E0 (evangelism 0)이라고 표시하고, 장애가 많아 그 거리가 멀어지는 것에 따라 E1, E2, E3 라고 이름하고 교

회 개척의 종류를 단순화하여 구분하였고, 선교적으로는 M0-M3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주 단순화한 용어의 정의 같지만 이런 용어를 적용하여 보면 우리들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대부분 교회의 선교는 M0-M2에 이르는 영역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과제는 과감하게 M3 영역인 전방 개척 선교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회의 선교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아야 한다. 교회에서 몇 명의 선교사를 어떤 지역, 어떤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였는지 확인하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할 때는 몇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며 협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사가 전방 개척 선교를 위하여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또한 전체 선교비 예산이 선교사의 파송과 후원을 넘어 직접적인 선교 참여를 위하여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교담당자들이 변경될 때마다 선교 정책이 변경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

선교정책을 수립하여 교회 선교정책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며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교회선교정책 매뉴얼을 만들어서 담당자에 따라 변화무쌍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선교정책 매뉴얼을 만들 때는 우리 교회와 비슷한 교회들의 선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대형교회들은 대부분 일정한 선교정책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중소형교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중소형교회들을 위한 선교 정책 매뉴얼을 참조하여 만들어 적용하며 수정해 나가야 우리 교회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교회의 선교 정책을 수립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선교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교는 전방 개척지로 파송 받은 선교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을 파송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투에 직접 나간 선교사와 함께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본부와 보급부대 등 완벽한 팀을 이루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근시안적인 선교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큰 그림을 보며 개교회 선교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역교회의 선교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실질적인 것은 선교사의 생애주기를 생각하며 개발하면 좋은 선교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선교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 선교지에 적응하고 사역하며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되는지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필요할지를 생각하게 된다. 대부분의 교회 선교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현실만 생각하고 나면 근시안적인 프로그램으로 그칠 수 있다.

지역교회의 선교 열정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가족이 선교사로 나갈 때 불이 붙는다. 일반적으로 선교의 불은 선교사의 삶을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붙게 된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하기 위해선 우리 교인 누군가가 선교지로 나갈 때에 활성화된다. 먼 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선교는 현실적이 된다. 유년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가 선교사로 나가고 그의 자녀들이 선교지와 본교회에서 교류하며 자라다가 대를 이어 선교사역을 후원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미주한인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과감한 발걸음을 내어 던져야 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25강. 광야 38년, 늦봄 그리고 도피성 / (민수기 20-36장) (4)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 저주하지 못한 발람은 결국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과 음행하도록 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징계를 말씀하셨고(민 25:16-18) 이때 미디안과의 전쟁을 말씀하십니다(민 31:2). 모세는 비느하스를 함께 보내 하나님의 명대로 미디안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습니다(민 31:3-12).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기 에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물건도 깨끗하게 하여 진영에 들어오도록 하고(민 31:13-24) 탈취물을 구분하여 절반은 군인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줍니다(민 31:25-27). 그리고 다시 그들이 받은 몫을 나누어 하나님께 그리고 레위인에게 주도록 합니다(민 31:28-31). 그저 그들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원하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이 와서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나안 전쟁의 승리 때까지 군인으로 참여하겠다고 합니다(민 32:1-5).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지만(민 32:6-15) 그들의

마음은 이미 요단 동편의 목축할 만한 넓은 장소에 있습니다(민 32:1). 하나님의 법규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보다는 '눈에 보기에 좋은대로' 선택한 것입니다(창 13:10,11). 결국 그들은 모세에게 이곳에 사람이 살 성읍과 짐승의 우리를 짓고 가나안 전쟁의 승리 때까지 군인으로 참여하겠다고 합니다(민 32:16-42). 이렇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민 32:33)는 요단 강을 건너기 전부터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중간 중간 있었던 사건들과 함께(민 33:3-4) 자세히 기록합니다(민 33:1-49).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

“우리의 삶의 여정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긴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가나안 정복의 원칙은 '진멸'입니다(신 7:2,23,24,20:17). 만일 진멸하지 아니하면 남아 있는 것들이 울무가 될 것입니다(신 7:16).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민 33:51,52)

고 하시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민 33:55)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쫓아내지 않을 것 임입니다. 쫓아내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쫓아내지 않는 것

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고(민 34:1-12) 요단 동편과 서편 모든 지파에게 지휘관을 세우 땅을 분배해 줍니다(민 34:13-29). 또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민 35:1-8). 왜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인을 챙기시고 보살피시는지에 대해서는 'One Story' 23강 '레위인은 내 것이라'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전역에 '고의가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괴류하는 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여섯 지역에 '도피성'을 두라고 하십니다(민 35:9-15). 그러나 고의를 가지고 살인한 자

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민 35:16-21).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은 피를 보복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피하여 도피성으로 도망쳐 '거룩한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민 35:25) 그곳 도피성에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도피성 밖으로 가면 죽임을 당해도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민 35:26,27). 그러므로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민 35:28).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닌 원죄에 대한 대가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까지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온 분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여 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민 35:33,34).

이제 하나님은 이어지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들어가 거할 가나안 땅에서의 '계명과 규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민 35:16-21).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은 피를 보복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피하여 도피성으로 도망쳐 '거룩한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민 35:25) 그곳 도피성에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도피성 밖으로 가면 죽임을 당해도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민 35:26,27). 그러므로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민 35:28).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맡겨진 구간 (왕상 19:1~21) 찬 347장

엘리아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낙심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것이 맞습니까?'라는 푸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 푸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하사엘,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아를 네 제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마디

로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너는 정해진 너의 구간만 달리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달리실 구간'과 '자신이 달려야 할 구간'을 혼동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주신 사명과 그 사명의 구간만 열심히 달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달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구간'까지 걱정하지 맙시다.

화 마사지가 아닌 메시지를 기뻐합니다 (왕상 20:26~43) 찬 459장

아합은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기에 앞서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사실, 예언자들에게 묻기 전에 아합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언자들로부터 본인이 원하는 '마사지'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아합은 싫어합니다(왕상 22:1~28). 결

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본인이 원하는 마사지를 기뻐했던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마사지를 받을 때는 잠시 기분이 좋지만, 결국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 때는 아프지만, 그 메시지에 순종하면 생명입니다. 마사지를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뻐합니다.

수 잔피가 아닌 거룩으로 삽시다 (왕상 22:29~38) 찬 436장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연합을 이루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갔습니다. 이때 아합은 죄를 내어 자신은 일반 병사처럼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합은 어느 병사가 쓴 화살에 맞았습

니다. 갑옷 사이에 아주 적게 벌어진 틈으로 화살이 정확히 쏘였고, 아합은 결국 전사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잔피로 살지 말고, 거룩으로 삽시다.

목 고난 중에 드러나는 믿음의 진가 (왕하 1:2~17) 찬 456장

고난 중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신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하시야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때 그는 바알세불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세불에게 의지했습니다. 큰 파도를 만났을 때 선장의 노련함이 드러나듯,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을 때 믿음의 분량이 드러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금 세상 풍조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왕하 2:19~25) 찬 369장

물의 근원이 오염되어 있고,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놀립니다(왕하 2:19~25). 이 모습은 당시 영적인 시대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영성을 흘려보내는 왕(아하시야)부터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도 짐작이 됩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따라서 배우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사

는 시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가 우리를 멀리합니다. 우리도 세상 풍조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아와 엘리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토 우리는 평안합니다 (왕하 4:8~37) 찬 413장

엘리아가 '수넵'이라는 동네를 갈 때마다 엘리아를 극진히 대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그 여인에게 자녀가 없음을 알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언대로 그 여인과 늙은 남편 사이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수넵 여인은 갈멜산에 있는 엘리아를 찾아갔고, 엘리아는 그의 종 계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급히 죽은 아이에게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합니다. 엘리아가 죽은 아이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에게 자기 몸을 포개어 덮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서서히 체온이 올라가고 재채기를 일곱 번 한 후에 살아났습니다.

아이를 잃은 수넵 여인은 엘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아는 계하시를 통하여 그녀와 그녀의 남편, 아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때 수넵 여인의 대답은 "평안하다"였습니다(왕하 4:26). 아이를 잃은 이 여인의 심경은 비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평안'이었습니다. 엘리아는 그녀의 아들을 살렸고, 결국 수넵 여인은 자신의 고백대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넵 여인은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믿음' 때문에 평안을 누리었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평안'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30)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아남네시스와 "거기 너 있었는가"

지난 20세기 중반 우리 민족이 희비의 대조를 이루었던 두 개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는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조국의 광복을 맞게 된 희극의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1950년 동족상잔의 고통으로 점철되는 6·25 전쟁 비극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는 점점 줄어들어 당시 우리 민족의 해방이 주는 희열과 전쟁의 그 비열한 참상들을 이제는 전연으로 들으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사건에 대한 단순한 정신적 회상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 과거의 일을 현재로 적용하여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 이야기의 일부로 만들어 큰 교훈으로 가슴에 담게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헬라어로 아남네시스(anamnesis- remembering)로 정의하게 됩니다. 미국의 노예 역사를 보면 1619년 8월 버지니아 식민지의 제임스 타운에 네덜란드 국적선의 노예선 한 척이 도착해서 20명의 흑인을 팔아넘기면서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Abram Lincoln, 1809-1865)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때까지 약 250년 동안 미국에서는 노예제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노예들에 의해 불린 찬양 중 "거기 너 있었는가 (Were You There)"가 대표적인 "아남네시스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만든 유명한 영가 (Spirituals)중 하나입니다. 당시 일부 노예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예는 이러한 고난의 현실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절함을 갖고 찬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중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은 당시 흑인 노예들이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의 과거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기억(아남네시스, anamnesis)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빛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의미로 "그곳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과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기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로 선택하며 이런 찬양했던 것입니다. 찬양 속에 담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뻔뻔 4:1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이 서신의 저자 베드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산 소망을 제시하여 그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려는 목적을 갖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이 서신 가운데 특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와 희망을 품으라는 권면을 보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흑인들(Afro. American)은

노예 생활을 당하며 그 고통 속에서 이와같은 인내와 소망을 갖고 "거기 너 있었는가?"라고 진하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이면을 보면 그들은 비록 자신들을 노예로 삼은 저들이 많은 자유를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그 현실을 저항하며 외쳤던 울림이었을 것입니다. 이 곡은 회중교회 목사이며 작가인 윌리엄 바튼, William Eleazar Barton, 1861-1930)이 1899년 "오래된 식민지 찬송(Old Plantation Hymns)"이라는 찬송가집 안에 처음 출판하여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으로 작곡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곡이 점점 대중화가 되면서 다양한 교회 찬송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버전에 최초로 이 노래를 성교회 찬송가에 포함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대 노예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통해 나타난 음악들이 후에 미국 음악 뿌리의 근간으로 나타나 두 가지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블루스입니다. 들뜬에서는 종종 침울하고 애절한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블루스 스타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펠입니다. 교회에서 노래는 고양되고 즐거운 방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가스펠 음악 스타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영가의 깊은 울림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 나타난 역설의 하나님 찬양에 대한 열매들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는 네박자 형태를 가지고 전형적인 두박자 형태의 블루스 리듬과 함께 많은 루바토를 사용하여 표현하게 되는 곡입니다. 이러한 리듬 형태를 보이고 멜로디로 표현되는 것 안에 노예의 서러움과 애절함 속에 슬픔을 담아내는 멜로디로 구슬픈 울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상기시키며 자신들의 아픔을 대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일깨우게 합니다. 그래서 C. S. 루이스 (Clive Staples Lewis, 1898-1963)는 "고통은 베일을 벗기고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는다"라는 역설의 비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율해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그리스도의 수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고통을 기억(아남네시스(anamnesis)하며 복음으로 인한 진실의 깃발을 꽂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마땅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iyoona@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터뷰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동남아시아 M국

▲ 종족명
팜 & 새둥지 종족

▲ 인구
약 15,000명 팜 종족 3,000명, 새둥지 종족 12,000명

▲ 종교
팜 종족 - 기독교 30%, 회교 10%, 기타 60%
새둥지 종족 - 회교 99.9%

▲ 기타
문맹률 20%

▲ 프로젝트 소개
팜 종족 프로젝트는 성경 번역과 성경 활용 사역을 통해 팜 종족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회교도 종족인 새둥지 종족 사람들에게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2004년 성경 번역이 시작되어 2032년 완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경 활용 사역으로 비복, 소책자 등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주일학교와 소그룹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M국 여러 교단과 연합하여 다른 종족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그들의 언어로 이러한 자료들의 제작과 활용을 돕고 있다.

▲ 기도제목
1. 팜 종족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가정과 이웃에 빛과 소금이 되고, 나아가 팜 종족과 새둥지 종족의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도록
2. 성경 활용 자료들의 번역, 출판, 제작이 순조롭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유럽목회연구원 세미나 (28차)

1993년에 시작된 유럽목회연구원 세미나가 28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30여 년을 진행하는 동안, 아일랜드의 화산 폭발과 코로나로 몇 번 쉬어야 했으나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유럽목회연구원 세미나는 단순히 세미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를 마치고 며칠 동안 함께 어우러져 선교지 탐방을 전통적으로 했다. 그 시간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세미나 이상 유익했고, 치유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곤 하였다.

어려운 목회, 및 선교지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복된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초교파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선후배에 대한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맘껏 마음을 열고, 깊은 곳에 가두었던 응어리들을 토해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번은 세미나 30주년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참석한 회원들에게 베풀어주셨다. 여러 후원의 손길을 통해 이태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크루즈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를 타고'(행 27:1)라는 주제로 103여 명이 사도바울이 2천 년 전에 배를 타고 누웠던 지중해 일부를 돌아보며 세미나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이 탔던 작은 배에 비해 우리가 탄 배는 1만 8천 톤으로, 높이 15층의 큰 배였기에 흔들림을 느낄 수 없었으나 사도바울이 탔던 배는 파도에 요동이 심했었다.

이번 세미나 강사는 이여백 목사(주사랑선교회), 고광종 목사(인천성산교회), 김영복 목사(인천성산교회), 안용식 목사(김해제일교회),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가 수고해주셨고, 특별 강사로 캐나다의 박헌승 목사님께서 헌신하셨다.

이여백 목사님께서서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역설하셨고, 고광종 목사님은 성도가 굳게 붙잡아야 할 구원의 확신은 객관적 증거인 성서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김영복 목사님께서서는 처치프랜칭 바이블에 대하여, 그리고 심하보 목사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라! 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안용식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민 27:21-26)를 강의하셨다. 그리고 폐회예배에 캐나다의 박헌승 목사님께서서는 우리가 배를 타고(행 27:1)를 중심으로 우리가 배를 탔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승선이고,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역설하셨다. 크루즈의 사정으로 7박 8일 동안의 세미나는 매일 오후 2시간으로 만족해야 했고, 바다에서 하선할 수 없는 마지막 날에는 5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배 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료(커피와 각종 음료)는 무료로 마시도록 하였고, 각 기항지 여행도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도모하였다. 한 마디로 호사가 넘치는 세미나였다.

첫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는 데, 먼저 시내에 있는 유명한 가우디 성당을 보고 승선했다. 배는 오후 4-5시경에 다음 행선지를 향해 출발하곤 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마르세유였다. 마르세유는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항구도시로 불란서의 제2도시요, 인구가 150만을 넘는다고 한다. 마르세유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워진 노트르담 드

라 카르드 성당을 보았다. 또한 마르세유는 본래 물이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먼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왔다고 한다. 그 기념으로 만든 생 마들렌 분수를 구경했다. 쉬지 않고 하늘을 향해 물줄기를 뿜어 올리는 분수를 통해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영광과 기도를 학습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지역은 프로방스가 인접한 곳으로 고초가 머물러 그림을 그렸던 지역이기도 하다. 16세기에 극렬한 핍박을 피해 위그노들이 도피했던 곳이기도 하고 일찍이 중세기에 십자군들이 이곳 항구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그 다음 밤을 달려 도착한 곳이 이태리의 제노아였다.

1983년도 밀라노 한인교회 여름수련회를 인도했던 곳이기도 하고 이곳은 항구도시로 베네치아와 자웅을 겨루었던 도시로 바이올린의 천재 파가니니가 태어난 도시고,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의 고향이기도 하다. 비가 내릴 것 같은 우중충한 날인데 허물어진 그의 집 앞에서 사진 한 장을 찰카! 콜럼버스가 왜 이리 늦게 왔냐고? 언짢은 표정을 짓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배타고 간 길 보다 훨씬 먼 동양에서 왔다고 하니 고개를 끄덕여 공감하는 듯했다.

우리가 탄 배는 오후에 어김없이 출발하여 아침에 다음 항구에 도착한다. 도착한 항구는 내가 살고 있는 로마의 가까운 치비타 베키아(Civita vecchia) 항구였다.

처음 이곳에 온 사람들은 로마를 구경하기 위해 우르르 몰려 하선했고, 우리와 몇 사람은 배에 남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바다를 멀리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배는 또 출발했다. 바울이 탄 배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가야 했지만, 우리가 탄 배는 분명한 목적지인 시칠리아 팔레르모를 향해 가고 있다. 지도로 볼 때 먼 길이다. 커다란 배로(승선인원 6천명) 한차례 물살을 가르며 행선지를 향해 가고 있다.

바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낯선 장소에 대한 호기심으로 핍박과는 전혀 상관없이 즐거워하고 있다.

아침의 여명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 우리는 준비된 푸짐한 조반을 먹는다. 빵을 맛있게 먹도록, 접시에 올리브기름을 따라놓고 식초를 배합한다. 거기에 빵을 찍으면 한결 감칠맛을 내게 된다.

주님께서는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에서 얼마 있다가 자신을 팔아버릴 가롯 유다에게 빵을 건넬 때, 맨 빵을 주지 않고 빵을 맛있게 먹도록 찍어서 주셨다(요 13:26). 그런 사랑을 우리는 어찌 배울 수 있을까?

팔레르모는 수난이 많은 도시다. 일찍이 그리스 사람들이 점령하였고, 그 다음 칼타고, 그리고 로마, 또한 중동의 이슬람, 불란서, 또 신성로마제국, 그리고 바이킹족들 그런 과거가 있었기 건축물에도 적당히 섞여 있다. 이상하게 시칠리아는 음식과 카페가 특별하다.

그래서 로마나 밀라노 같은 대도시에는 시칠리아 이름을 붙인 카페나 레스토랑이 많다. 또한 이 지역 특산물인 오렌지는 유명하다. 화산재로 인해 과일이 잘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소가 몰타, 멜리데(행 28:1)다.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바울은 열나흘쯤 되는 날 밤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갈매'(행 27:41) 지금도 바울 사도가 만나 상륙한 지점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해안을 만나게 된다. 그곳은 크루즈가 입항하는 항구와는 다른 쪽이라 볼 수는 없었지만(전에 갔었음), 의미가 깊은 곳이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곳 추장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을 고쳐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다. 그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 이 섬의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행 28:9). 그 결과 큰 환대를 받을 수 있었고, 떠날 때 뱃사람들이 쓸 것을 배에 실었다고 했다.

이곳에서 우기를 지내기 위해 머물게 된 3개월은 그 곳을 복음화 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바울과 함께 왔던 276명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주 앞에 나왔을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행사였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크루즈가 주는 편안함을 만끽함으로 그동안 힘들었던 사역이 위로를 받고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호강을 할 수 있었느냐고 최고의 세미나였다고 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유럽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향한 배려하심이라고 믿는다. 은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다.

특히 화려한 장소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하여주신, 이여백 목사(주사랑선교회), 고광종 목사(인천성산교회), 김영복 목사(의정부부사랑과 평화의교회),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안용식 목사(김해제일교회)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2024년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장소는 크로아티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바르셀로나 가우디 성당

여준모 위장간내과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경성을 다하는 여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7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예배를 회복하라, 2박3일 예배를 배웁니다.



NYSKC 예배회복 Family Conference AR 2023

When the worship is restored, the church is risen, the nation is renewed, and the family is revived

— TITLE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You will Come to Life 겔 37장 5절

— DATE

June. 27-29

TUE

THUR



총제
피종진 목사
Rev. Jongjin Pee
NWM 총제
남서울교회 원로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
Rev. Goshen Choi
NWM 대표회장
뉴욕서광교회



실무회장
이병완 목사
Rev. Byungwan Lee
NWM 실무회장
워싱턴세계로교회



사무총장
김은목 목사
Rev. Ezra E. Kim
NWM 사무총장
LA평화교회



대회장
전남수 목사
Rev. David N. Jeon
GTS Prof.
알칸사제자들교회



강사
강효열 목사
Rev. David H. Kang
GTS Prof.
아들란타서광교회



강사
이용화 목사
Rev. Troas Y. Lee
Nyskc Univ. 교무처장
몬트리올로고스교회



강사
황디모데 목사
Rev. Timothy Hwang
회복의 신학학회 연구실장
몬트리올서광교회



강사
최기성 목사
Rev. James Choi
회복의 신학학회 실장
뉴욕답스페리한인교회



강사
윤구현 목사
Rev. Guhyun Yun
Nyskc 전남본부장
한국과역중양교회



강사
김철 목사
Rev. Joseph Kim
알칸사제일침례교회



강사
홍성태 목사
Rev. Sungtae Hong
알칸사사랑교회



강사
기영렬 목사
Rev. Young Ki
달라스드림교회



강사
손해도 목사
Rev. Haedo Son
코너스톤침례교회



강사
신자겸 목사
Rev. Jakyum Shin
달라스하나교회



강사
장태구 목사
Rev. James T. Chang
알칸사제자들교회 EM

행사소개

- 예배는 훈련입니다.
- 2박3일 예배를 배웁니다
- 예배가 회복되면 다 삽니다.
- 온 가족과 함께 합니다.
- 30년 역사의 예배 컨퍼런스입니다.
- 목회자(사모), 평신도, 청년 - Youth, 어린이 4개의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안내 및 등록문의 200명 선착순

- 대상 : 목회자(사모), 평신도, 청년 - Youth, 어린이
-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 29일(목)
- 장소 : 알칸사 제자들 교회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 등록비 : 1차 \$100 / Person (5월 1일 까지)
2차 \$150 / Person (5월 31일 까지)
Pay to NYSKC-AR / T-shirts 및 교재 제공, 점심&저녁 제공
- 숙식 : 숙박은 교회/개인별 호텔예약(Group 할인), 셔틀이용, 호텔조식
- 등록문의 : 곽인영 전도사 (501-554-9647) / inykwak@gmail.com

NYSKC WORLD MISSION

www.nyskc.org | davidnjeon@yahoo.com | 501-920-9049

